

제1427호

2023/7/19/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점검

윤석열대통령, 수해지역 주민 찾아 위로.."예산 충분히 투입해 일상복귀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먼저 공주 탄천면 대학리의 농 작물 침수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방 문한 비닐하우스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 었지만 내부의 작물은 잎사귀까지 토사로 뒤덮여 있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을에 출하하려던 사과대추가 피해를 입었다며 대통령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했고, 김천기 이장은 마을에 배수펌프가 없어 인근 금강물이 작물을 덮쳤다며 배수펌프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또 현장에 동행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작물들이 신품종이라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배수펌프는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 장관에게 주문했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복구를 지원하고 있는 32사단 장병들을 만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고, 장병들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바로 이어서 인근 축사를 방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축사 주인은 "축사에 3m가 넘게 물이 차올라 소 33마리 중 22마리가 사라졌다"며 "특히 소는 물이 차올라도 주인이 데리고나가지 않는 한 도망치지 않는데도 피해가 컸다"고 눈시울을 붉혔고, 이에 대통령은 피해 주민의 손을 잡고 위로와 지원을 약소했다.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또 다른 주민이 눈물을 흘리며 지원을 호소하자 대통령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일상으로 복귀하도 록 지원하겠다. 걱정마시라"고 주민을 위 로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축사 복구를 지원하던 32사단 김관수 사단장으로부터 68개 지역에 1,300명 장병을 투입해서 재난 극복을 돕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받고 "분뇨 냄새가나는데도 장병들이 고생이 많다. 우리 장병들 밖에 없다"며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통령의 방문과 위로에 축사 주인은 뻘로 뒤덮인 현장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도 있었다며, 수해로 힘이 빠진 어미소가 출산을 힘들어하자 장정 4명이 출산을 도와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떠나기 전 직접 어미소 와 송아지에게 여물을 주고 우리 장병들에 게 "수고하시라, 화이팅!"이라고 했고 장병 들은 "충성"이라고 경례하며 감사를 표했

축사를 나온 대통령은 인근 대학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2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을 만난 마을 이장은 "마을 지대가 얕아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며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하천 정비도 해주셔야 주민들이 편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고대통령은 "준설도 하고 배수 펌프시설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행히도 주택은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작물 피해가 커서 안타깝다. 오늘 충남지사, 농림부장관이 같이 왔는데 직접 상황을 봤으니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정부가 원상복구를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특히, 대통령이 "농산물 피해 현황을 살펴서 가을추수가 정상적일 때와 다름없도록 지원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입을 모아 감사를 표하며 바스를 납내다

대통령은 주민들을 위로한데 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대비책 마련을 강 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존 배수 장 용량은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했 는데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눈, 비, 가뭄이 많아져 새로운 대책이 필요 하다"며 "예를 들어, 1년에 내릴 비가 사흘 동안 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반화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하천 정비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후변화가 태평양도서국 등 다른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영향을 받 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떠나며 "어제 방문했던 경북은 인명피해가 크고 충청과 전북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커 안 타깝다.

벼농사는 물이 빠지면 괜찮을 수 있는데 콩이나 깨 같은 작물이 많이 유실된 것 같 다"며 현장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오늘 현장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김태흠 충남지사, 최원철 공주시장 및 정 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최광수/2

#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에선 미증 유 재해사태...신종 재난

6만 구독경제 포인트 구매 시 추가 4만 포인트 지급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와 더불어 향우 폭우 대비와 피해수습에 만전 기할 것

이철우 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지속적이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새로운 재난대응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에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지역에선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재해 사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천958개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한 곳뿐이다.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수백 년 동안 살던 마을에 발생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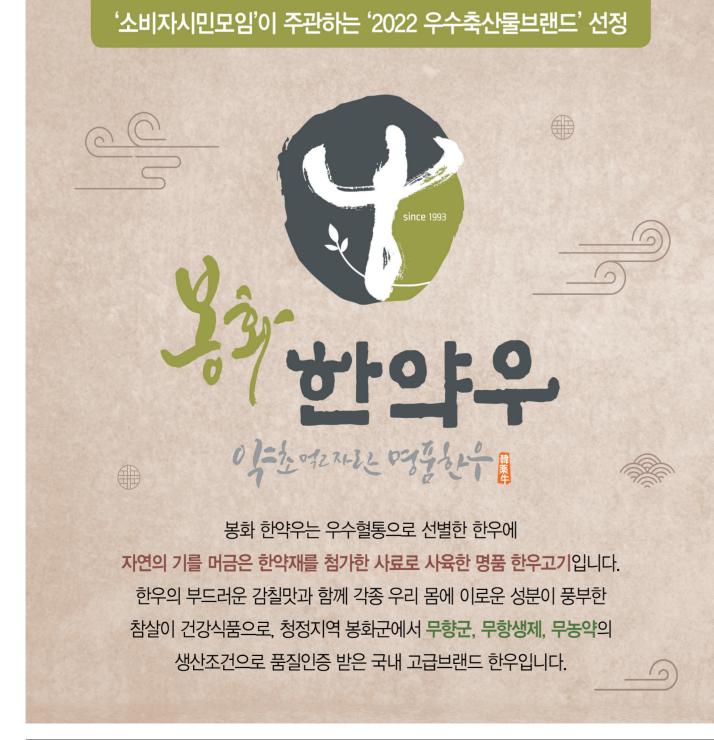
지 경북 북부지역에 9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 (292.2mm)의 3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단기간의 기록 적인 폭우와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폭우 가 지속돼 예측하기 힘든 신종 재난이 발 생한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합동 연구조 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시 점이다"라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선제 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하고 있 어서 지역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예방적 주민대 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공무 원.경찰.의용소방대 945명과 시군의 이·통장 7095명을 동원해 15일에는 3073명, 16일에는 2622명을 긴급 대 피시켰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경기도체육분야 활성화위한의미있는한걸음이끌다!

###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 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지 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가 결된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 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18일 본회 의에서 통과되 경기도 체육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경기 도시공사(GH)가 위탁운영하던 ▲ 경기 도사격테마파크 ▲ 경기도유도회관 ▲ 경기도검도회관 ▲ 경기도체육회관에 대 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 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를 통해 향후 도내 전문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운영, 효율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지난 1일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경기도체육회 이관을 시작으로 이번 도 립체육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까지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성과 뒤에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

롯한 상임위 위원,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공감, 성찰, 협력이 있었기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 문화 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에서 논의된 경기도체육회 관련 위탁업무 이관, 조직 활성화, 체육회장 선거제도 개 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 등의 문 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발전TF'를 제 안했었다."면서 "올해 3월부터 총 3회에 걸쳐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 도립체육시설 활용 제고 ▲ 체육회 조직 활성화 ▲ 민 선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 체육회 북 부분원 설치 ▲ 체육단체 협력 등 주요 6 대 논의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고 현실가 능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결과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어 소관 위원장으로서 감 사하고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체육 분야에서 겪은 일련의 과정은 경기체육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찰(省察)의 시



간'이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 큼 성숙해졌다."고 밝히며, "도청 직장운 동경기부 운영 이관에 이어 이번 민간위 탁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끝이 아니라 경기체육 미래100년을 위한 변화와 혁

신, 협력의 시작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도내 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예산확대 등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 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기자

### 이광일 전남도의원, 여수 수해 현장 곳곳 긴급방문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 주당, 여수1)은 최근 지속적인 집중호우 로 인한 여수지역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점검 회의 와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전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많은 사 상자가 속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에도 토 사가 흘러내리거나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돌산읍에는 지난 15일부터 16일 까지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259.5mm 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고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광일 의원은 지난 16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에 위치한 하얀연꽃요양원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여수시 관계 공무 원 및 직원·군인들과 함께 입소 어르신 대

피와 더 이상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복 구작업을 함께했다.

또한 17일은 여수 돌산읍 율림리 대율 마을 입구 차도에 토사가 쓸려 내려오는 사고가 발생해 여수시청 도로과 직원과 함께 차량통제 작업에 나섰으며, 18일은 돌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토사유 입 방지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광일 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 긴급복구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해야 한 다"며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산사태 취약지역 및 상습 침수도로를 집중 예찰하고 피해복구 문제에 대해 항 구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와 여수시 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

박종배/기자



# 경북도의회 민주적 문제해결 향상,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한다.

### 도내 61개 학교 3,700여명 참여, 참여한 학생들 92%가 만족

경상북도의회가 운영 중인 청소년의 회 교실이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 주주의 체험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 고 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 에 처음 도입하여 그 동안 도내 61개 학 교, 3,700여명이 체험했으며, 미래의 유 권자인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이 1일 도 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회민주주 의 체험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인 의회공간을 적극 개방하고,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 써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라는 경상북도의회의 슬로건에도 부합되 학생들의 의회 민주주의 교육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되고 2년 6개월 동안 운영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하반기(12대 의회)부터 재개하면서 체험 위주 프로그 램으로 대폭 개편했다. 학생 개인정보 이 용 동의를 바탕으로 학사일정, 원거리 이 동(안전) 등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의견 을 반영하여 체험시간을 조정(하루 종일 → 오후 2시간)하고, 학생들의 발언기회 를 확대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3분 자유발언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및 건의 안 등 안건을 추가했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여 도의회(의원 역할, 본회의 및 상임위 운영)를 안내하 고, 인생 선배로서 덕담과 함께 수료증 수 여 등을 통해 의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학교·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생들 이 깊게 고민하여 스스로 안건을 작성하 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하며,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로 표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 여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좋은 경험을 하고가는 것 같아서 좋 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

"장래희망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의회의 기능을 알 수 있고 직접참여를

하여 몸소 느끼는 체험을 하여 뿌듯했다.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런분야의 일을 가지는 진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TV로만 봤던 곳을 직접와서 신기하 고 도의원 역할도 체험해보니 신기한 경 험이었다."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 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조금 더 정치

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 한 시간이 너무 빨리가서 아쉬웠다" "본회의장이 웅장해서 처음에 긴장됐 지만, 너무 재미있었고, 나중에 의장도 해

보고 싶다" 위의 내용은 2022년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소 감문 중의 일부내용이다.

설문조사결과 도의회 역할과 기능이 이해된다는 90.3%, 민주시민 역량에 도 움이 된다는 92%,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는 95.6%, 후배들에게 참여를 추천하고 싶다는 91.2%로 참여한 학생들의 92% 가 만족할 만큼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 다.

'2022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생 설문조사 결과' - 도의회 역할과 기능 이 해 : 90.3% - 민주시민 역량에 도움 : 92% - 프로그램 유익함: 95.6% - 안 건 발표시간 적당함: 92% - 후배들에 게 참여 추천 : 91.2% 가장 재미있는 프 로그램: 발표, 전자투표 가장 불만족했던 점 : 체험시간 부족 건의 사항 :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간식을 더 많이 주세요. 참여

소감 래희밍 에 대한 한 걸 음 더 나이 가는

기가 됐

다.

장히 유

익한 다.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다고 느꼈다. 등 진행순서는 개회식 식전 순서로 입교식 을 통해 지역 도의원 환영사와 단체기념 촬영을 한 후, 학생 의장의 개회사와 개의

이 시작된다. 이어서 학생 의원 2명의 3분 자유발 언, 안건으로 상정된 회기결정의 건과 회 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학 생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을 상정 하여 대표 발의한 학생 의원 2명의 제안 설명을 듣고, 2명의 학생 의원의 찬성토 론과 2명의 학생 의원의 반대토론을 거 쳐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결 또는 부결 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어서 건의안 2건을 상정하여 마찬가 지로 학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 자투표로 표결하여 처리하는 등 학생 의 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학생 의원의 발 언을 거쳐 안건을 처리한 후에 학생 의장 이 폐회를 선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폐 회 후에는 지역 도의원이 참여한 모든 학 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금년 상반기(4월 21일부터 6월 30일 까지)에는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시작으 로 칠곡 왜관초등학교, 구미 형곡초등학 교, 경산 성암초등학교, 경주여자중학교 등 10개 학교, 270명이 체험활동에 참여

했으며, 하반기에는 7월 5일 운곡초등학 교를 시작으로 포항 영일고등학교,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포항 동성고등학교 등 11개 학교,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 5개 학교(115명)에서 21개 학교 (670명)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현재 고민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 및 사회문제(제도)가 무엇 인지를 관계 기관(교육청 등)이 알 수 있 도록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를 송부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장 모범인 된 학교와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 학생, 관계 기관(학교, 교 육청), 참여 도의원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회교실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 내 년 기본계획 수립에 미비점을 보완 할 계 획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1일 도의원 체험을 통해 평소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대화 와 타협과정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고, 친 구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지방 의회와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쉽 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우리나라 미래 리 더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만 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참 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 집중호우 대비 오산천 점검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지난 18일 전국 일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오산천에 현 장방문했다.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 황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성길용 의장은 침수 피해에 사전 대응과 예방을 위해 오 산천 산책로, 지하차도 등 현장점검에 나

성길용 의장은 현장 방문 중 오산천의 수위 변동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했고,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점 검하고 비상대책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성길용 의장은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 국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산시 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산천 산책로, 하천 등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식별하여 사후약방문이 되 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시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생명 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조치 를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

양시현/기자



# 충남도의회,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으로 시너지효과 기대

충남도의회가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자원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정원 관 리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 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 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 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4년 충남 도내에 서 목표하고 있는 지방정원 개장에 맞 춰 준비됐다. 특히 수목유전자원의 보

존·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 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 시간 ▲휴원 관련 규정 ▲이 용료 및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 료 및 입장 제한 ▲편의시설 등에 관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인접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이용객 수가 30 만 명을 넘었다"며 "지방정원과 수목 원, 자연휴양림이 연계해 다양한 산림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관광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와 더 많은 관광 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 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서 최종 심의된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 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무:대선 (112) 사 회 부:내선 (113) 경 제 부:대선 (114) 스포츠부:대선 (115)

부동산부 :내선 (117) 오피니언부 :내선 (118) 지 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박승원 광명시장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17일 목감천 현장 방문…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사항 점검



명시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이형덕 광명시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서흥원 한강유역 환경청장,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 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 과 목감천 저류지 예정지 현장을 방문해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했다.

박 시장은 "작년에 1시간만 비가 더 내 렸어도 목감천 전체가 범람했을 것"이라 며 "목감천의 상습적인 범람으로 인근 주 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흥원 청장은 "기재부, 광 명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 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착공이 예정된 사 업이다.

사업은 23만 9천m² 규모 저류지 1개

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조직개편으로

신도시정비과를 신설했다. 시는 신도시

정비과를 중심으로 주민맞춤형 1기 신도

시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

고양시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노

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의

업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고양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

괄기획가·주민참여단 운영 ▲주민맞춤형

교육 지원 등 노후도시를 재정비하기 위

우선 시는 관내 노후도시 지역 32.3

km²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35 고양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

다.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

주민을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일산신도시 재

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침이다.

소와 제방 7개소, 교량 재가설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천800억 여 원이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예 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1천억 원가량 증 가해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 적정성을 재 검토 중이다.

목감천은 하류(도심지) 구간의 계획홍 수량(765m³/s) 대비 28%(210m³/s) 만 하도 분담이 가능해 치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하천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1시간 최대 강수 량 109.5mm, 누적 강수량 503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식곡교 인근 제방과 개명교 등 일부 지역에서 범람해 수재민 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시는 하류 양안에 1~1.8m 높이의 홍수 방어벽과 개명교, 개웅교에 교량 차수판 을 설치해 홍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전 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수해 현장점검 을 위해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목감천 저류지 설치 협조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윤용민/기자

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유형별

로는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5개 구역, 대

규모 블록 통합정비 3개 구역, 단독 정비

및 연립주택 7개 구역이 사업에 신청했

시는 이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장실사를 실시하여 지원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단지를 선정한 후 내

년 4월까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

주민 대상 교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

다. 시는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

춰 주민이 관련된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비·재건축 특별 강의를 운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고양 시가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일산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재

정비의 전국적인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

설팅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고 있다.

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 신설…1기 신도시

재정비 적극 지원

#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출범…34개 산학연 관참여해 반도체기업육성

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거버넌스 되도록 추진할 것"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주관으로 34개 산·학·연·관 기관이 참여 해 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 신성장을 견인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 트워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에서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 약식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는 염태영 경 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 소벤처기업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다. 기초지자체 7곳(용인.화성.성남.안 산.평택.이천.안성), 중앙기관 2곳(경 기남부경찰청, 평택직할세관), 민간협 단체 3곳(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 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 징산업협회), 지역혁신유관기관 12곳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 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용인시산 업진흥원, 화성산업진흥원, 성남산업 진흥원, 평택산업진흥원, 코트라경기 지원단, 기술보증기금 경기본부, 중진 공 경기지역본부, 중진공 경기동부지 부, 중진공 경기남부지부), 대학 4곳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가천대학교, 국제대학교), 연구소 4곳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 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 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등 총 34개 기 관이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협의체를 운영하며 반도 체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다. 발굴하고 인력양성에 공동 대응하는 등 도내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경과원 '반도체기업 종합지 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두며, 센터는 협의 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 할 계획으로 혁신네트워크가 경기도 반 도체산업의 거버넌스가 되도록 하겠다" 며 "도내 반도체 기업이 마음놓고 투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 호우 취약 지역 현장점검 실시

정명근 화성시장이 17일 집중호우 피

이번 현장점검은 침수위험 지하차도가 있는 향남읍 상신리 금곡지하차도를 시 작으로 산사태 취약지인 정남면 백리로

이 약해져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 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과 모니터 링을 강화해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9시 상황실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 황보고 및 조치결과 점검과 17·18일 예 비특보 발령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를 관련 국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 에게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 려지역은 과할 정도로 예찰해 피해를 예 방해야 한다"며, "피해사례가 접수된 경 우 선 조치 후 보고하고, 특히 위험 지하 차도는 호우시 담당자가 1대1로 현장대 기해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상상캠퍼스, 다 같이 더 많은 가치를 나누는 '다(**多**)가치 상상' 지역 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

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계속된 비로 지반

한편 현장점검에 앞서 정 시장은 금일

양시현/기자

### 7일 17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가치 상상'은 상상캠퍼스를 직접 방 문하기 어렵거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필요로 하는 경기도 내 기관을 연계 및 지 원하여 지역 사회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하고자 기획한 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 를 거치며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감소했 던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도민 들과 함께 많은(多) 가치를 공유하고 다

같이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지원사업 공모 진행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

상상캠퍼스는 문화취약계층 지역 기관연

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다(多)가치 상상'의 공모 접수를 7월 18일부터 8월

공모 방식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가 경기도 내 복지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접 근성이 취약한 도민 이용 시설(2개 기관 이상)을 직접 섭외하여 공모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심 숲에 위치한 문 화예술 복합문화공간인 경기상상캠퍼스 를 경기도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문 화예술교육 주제는 '숲과 예술'로 진행된 다. 교육 장소는 경기상상캠퍼스 내 공간 을 활용하는 '찾아오는', 기관 내 교육 공 간을 활용하는 '찾아가는', 두 공간을 모 두 활용하는 '찾아오는+찾아가는' 3가지 중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선정 단체는 9월부터 11월까지 '숲과 예술'을 주제로 연계 지역 기관 및

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접수는 7월 18일부터 8월 7 일 17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 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문화예술 콘텐츠· 교육 분야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 증을 소유한 경기도 소재 단체, 최근 3년 이내의 활동 실적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 는 단체 등이다. 서류 및 인터뷰 심의를 거쳐 5개 단체 내외를 선정하여 단체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상상캠퍼스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및 경기상 상캠퍼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용인특례시, 15일 청년정책네트워크 제4기 출범 킥오프미팅



용인특례시가 지난 15일 시청 컨벤션 홀에서 '제4기 용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킥오프미팅 사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거쳐 대학(원) 생, 자영업,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 55명의 제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선정했다.

킥오프미팅에서는 활동 운영과 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퍼실리테이 션(문제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 교육을

하는 한편, 6개 분과를 배정하고 위원장 을 선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4기는 이달 말에 발 대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한 뒤 본격적

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임정섭 위원장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제 4기 청년정책네트워크 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대에 부응하겠

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동을 공유하는 장 을 마련하기 위해 킥오프미팅 사전교육 을 개최했다"며 "원활한 활동 여건이 조 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 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 로 지역 청년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 효성 높은 청년정책 제안 및 적극적인 시 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65개사선정 하반기부터공장구축들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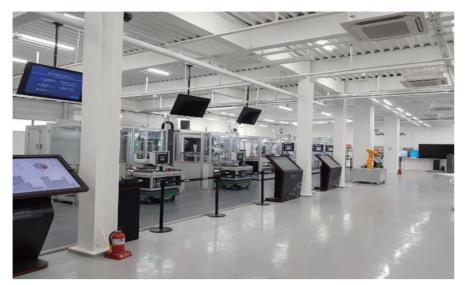
23년 경기도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65개 기업 선정 완료

경기도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65개 기업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공장 구축 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총 366개 사가 지원해 5.6대 1의 높은 경쟁 률을 기록했다. 신청 기업은 대부분 중소 제조기업으로 정부의 고도화 위주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영세 기 업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조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 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대상을 당초 55개 사에서 10개 사 추가해 65개

앞서 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는 접수된 366개 사 중 141개 사를 선정해 구축 전 전문가가 기업 현장 을 방문, 약 6주 동안 지능형(스마트)공 장 수준 진단, 구축 방향 수립, 공급기업 수행계획 검토 및 구축 계획서 작성을 지 원하는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들 기 업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진행해 지능 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대상 65개 기 업을 최종 선정했다.

도는 지난 4년간('19~'22년) 설비 및



솔루션 위주의 단순 지원내용에서 올해 는 기초부터 고도화단계까지 4가지 유형 별로 사업을 확대했다. 선정기업은 현장 의 제조공정 현황과 수준에 따라 ▲(유형 1) 설비 도입 ▲(유형2) 솔루션 구축 ▲ (유형3) 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특수목적 ▲(유형4) 데이터 활용 등 총 4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이뿐 아니라 작년까지 3천만 원이었던 지원액 한도도 대폭 확대해 올해는 유형 별로 5천만 원(유형1, 유형3), 7천만 원 (유형2), 8천만 원(유형4)까지 지원하 며, 과제 수행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 공한다. 기업부담금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으로 정부 지원 사업보다 낮아, 중소 기업의 디지털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주 고 있다.

선정된 도입기업은 올 하반기 공급기 업과 함께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하 며, 경기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도입-공급 간 의견조 율, 현장 애로 해결지원, 과제 일정 및 프 로세스 관리, 구축 성과분석, 납품 검수, 그리고 성공비즈니스 모델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이번에 선정된 A사는 "최근 설비투자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사업에 선정돼 인력난도 해소하고 대기업과 협 업도 가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중 소기업의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만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 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혜민 도 디지털혁신과장은 "경기도 제조업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만, 현장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문제로 제 조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형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지원으로 중 소기업 제조공정의 생산성과 효율, 품질 을 높이고 비용은 낮춰 기업의 제조경쟁 력을 강화해 첨단 제조 강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오산시, 민관 협력으로 1인 가구 고립·고독사 예방 방안 논의

이천시, 민선8기 제4차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

오산시가 1인 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 방을 위한 '함께On 희망On 오산'사업 모 니터링 간담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인 가구 고립 및 고독 사 예방을 위한 '함께On 희망On 오산'사 업 운영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건의 사항 이나 업무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1인가 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오산종합 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각지 대 발굴 담당자 등 총 9개 기관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는 ▲1인가구 고 립 및 고독사 예방 실태 조사 및 홍보 결 과 ▲1인 가구 집단 심층면접 및 고립예

방 프로그램 진행 결과 ▲문제점 및 건의 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기관 간 의 역할을 강화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 역 중심의 예방적 활동 방향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 "고립 및 고독 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가 함께 따뜻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해 결해야한다"며, "앞으로 민관협력 고독 사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고 립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 비스를 다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수원시 진로캠프에서 꿈을 향한 다양한 길을 봤어요"

무수한 직업이 사라지고 생성되는 사 회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것은 학생이나 학교만의 문제 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저마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진로의 길을 펼쳐 보이는 것은 사회의 건 강한 발전을 위한 의무이자 필수 요소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미래를 대비하 는 것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특별한 인재로 육 성되는 직업계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 업과 안정적인 진로 모색이 중요한 이유 다. 수원시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다 양한 지원사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수원시 진로캠프

"직업계고 진로캠프 덕분에 꿈을 향한 다양한 길을 알게 됐습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진로캠프에 참가한 A군 의 소감이다. 직업계고인 한봄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3월 말 이틀간 의 진로캠프를 경험하며 불안정하게 느 껴졌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 었다. 친구들과 팀을 구성해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성향 과 개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일학습병행 제 등 직업계고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필 수적인 정보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시 간도 유익했다. 특히 '미래의 내가 나오는 기사'로 신문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다. 그는 "미래를 상상할 때 특정한 활동 계획 같은 구체적인 고민 을 해본 적은 없어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글로 표현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꿈에 대 한 객관적인 방향을 확립할 수 있었다"며 "진로캠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부모님 과 함께 진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대화 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1학년 B양은 "원하는 직업이 있어 직업계고를 왔는데 도,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생 활에 대해서도 잘 몰라 막막하게만 느껴 졌다"며 "진로캠프를 통해 나에 대해 알 아가고,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내가 다니 는 학교와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다양 한 수업을 들으며 여러 길과 방법이 있다 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고민이 많던 내가 좋 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준 진로캠프 가 무척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오후 수원시청 대 강당에서 '2023 직업계고 진로캠프 총 평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진로캠프 경과보고와 참여 학생 소감 발 표, 우수 학생 시상 등이 진행됐다. A군과 B양의 사례와 같은 다양한 경험담이 참 석한 학생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가 전 국 최초로 시작해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벤치마킹한 사업인 만큼 더 세심하게 프 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듬고 투자 하겠다"며 "직업이 격변하는 시대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을 든든히 받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초 시작해 진로·리마인드·도

직업계고 진로캠프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 업이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 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올해 수 원지역 8개 직업계고 학생 전체가 참가

진로캠프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위해 당시 수원정보과학고, 수원전산여 고, 삼일상고 등 3개 학교 1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진로캠프 사업이 시작됐다. 학생 스스로 자신을 탐구하고 진로를 탐 색하는 진로캠프가 호응을 얻자 2년 뒤 인 2016년도부터는 8개 학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2학년도 진로캠프 대상으로 포함시켜 리마인드 진로교육을 개설했으며, 올해부터는 3학 년까지 진로캠프 대상이 늘어났다. 수원 에 있는 8개 직업계고의 전체 학생 5911 명이 모두 진로캠프에 참여하며 직업계 고 학생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셈이다.

원래 진로캠프는 합숙 방식의 캠프로 진행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각 학교에서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익숙한 학교와 교실에서 진행 한다고 해서 교육 내용도 익숙한 것은 아 니다. 1~2학년은 이틀간 14시간의 교육 을, 3학년은 하룻동안 7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내용이 모두 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춰 알차게 구성됐다.

우선 1학년 대상 진로캠프는 인성검사 로 1일차를 시작한다. 이어 캠프 소개 및 팀을 정하고 게임 등을 하며 친밀감을 높 이는 동기부여 시간이 진행되고, 픽토그 램을 통해 인성과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이후 선취업후진학, 일학 습병행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에 대해 알아본 뒤 공감으로 소통하는 방 법도 배운다. 2일차는 익숙했던 영화의 장면들을 통해 자존감을 찾아보고, 꿈을 발표하는 시간과 맞춤형 취업 전략 설정, 실천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담은 도전 박 스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2학년은 리마인드캠프다. 팀 단위 활 동을 위한 팀 빌딩 과정에서 단체 활동과 협업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어 직업유 형검사를 실시해 개별적 멘토링이 진행 되며, 신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



을 활용한다. 디자인싱킹으로 나만의 재 산을 창조하는 생각요리 시간도 이어진 다. 2일차에는 기업조직의 이해와 시간 관리계획, 목표와 로드맵 설정 등을 재미 있는 방식으로 배운 뒤 나의 인생 그래프 를 그려본다.

졸업을 앞둔 3학년은 도약캠프에 참여 한다. 3년 동안의 직업계고 생활을 돌아 보며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 두고 열정을 다진다. 또 '내가 사장이라 면' 등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 회사와 나 의 차이를 생각하고 줄여나가는 시간을 갖고, 첫 월급으로 한달 살아보기 등 효율 적인 금융 플랜도 배운다.

◇수원시, 맞춤형 지원으로 직업계고 학생들 취업 돕는다

수원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학 진 학 대신 취업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직업계고 학교 전담 일자리상담사 (카운슬러) 배치, 찾아가는 취업특강, 실 전 면접 클리닉, 노동인권교육 등 취업까 지 이후 필요한 소양까지를 모두 아우른 다. 특히 수원시와 직업계고 학교가 활발 하게 소통하며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 학교 와 수원상의, 수원일자리센터, 기업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

앞서 지난 4~7일에 한봄고와 삼일공 업고에서 진행된 실전면접 클리닉도 직 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수원일자리센터 컨설턴트들이 직접 이력서클리닉, 면접스킬 등 실질적 인 내용을 알려주고, 최근 면접 동향을 반

면접시 갖춰야 할 복장과 태도 등을 자연 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이재준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월27일 한봄고에서 진행된 진로캠프에 '수원시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 을 직접 소개하는 한편 자신의 직업 변화 스토리를 들려주며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용기를 북돋았다.

덕분에 학생들은 진로 설정과 자신감 에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 고, 지역 내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 보할 수 있다. 수원지역 인재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 이다.

이 같은 지원사업의 효과는 수원지 역 직업계고 학교의 높은 취업률이 증 명한다. 지난 2021년 수원 직업계고 취 업률은 65.2%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 국 55.4%, 경기도 51.5%와 비교했을 때 1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다. 지난 해(2022년)에는 수원 8개 직업계고 학 생들의 취업률이 67.7%로 상승해 전국 57.8%, 경기도 54.8%보다 월등히 높았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미래 수원시 의 리더가 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에서 수원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

이천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 천시의회 의원 및 이천지역 도의원, 시 간 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4차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시는 주요 정책사업, 현안사항 등에 대 해 수시로 시·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 협력의 창구 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집중호우에 대한 지역내 피해현황 및 대처상황을 점 검한데 이어, ▲하반기 민생안정 추가대 책 등 제3회 추경예산안 ▲중리천 지방 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요응답형 (DRT) 버스 도입 추진계획 ▲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했다.

시는 부진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위 한 특별 지원계획을 담은 민생안정 대책

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설명하고 시·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시·도의원들 역시 전통시장 등 골목경 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소상공 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밀한 지 원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계획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해결 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희 시장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오늘 시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 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식 의장은 "지역경제 상황을 비롯 해 우리시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어느 때 보다 시 행정부와의 긴밀히 협조하겠 다"고 말했다.

# "주민 일상에 더 가까이" 시흥시, 시민 밀착형 도서관 추진

시흥시가 시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 가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지역 밀착 화에 집중하고 있다. 도서관 조직 확대 개 편을 통해 시민 밀착형 도서관으로 거듭 난다는 방침이다.

고미경 평생교육원장은 18일 시청 브 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7. 3. 조 어 특화 도서관인 '웃터골작은도서관'을 직 개편에 따른 시흥시 도서관 운영 방향 을 발표했다. 고 원장은 'K-교육도시, 책 읽는 인문도시 시흥 조성'을 목표로 ▲생 활밀착형 공공도서관 확충 ▲복합문화공 간 역할 확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 ▲시민 주도 도서관 조성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기존 중앙도서관 단일 운영 체제에서 발생하는 정보서비스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독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선 지난 3일, 북부권 소 래빛 도서관과 남부권 중앙도서관 등 2 관 14팀 체제로 도서관 조직을 개편했다.

중앙도서관은 관내 도서관 정책을 총 괄함과 동시에 배곧 등 5개 공공도서관 을 지원하며 남부권 도서관 인프라 확충 과 독서 진흥 사업에 집중한다. 소래빛 도 서관은 작은도서관 사업을 총괄하고, 7 개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북부권 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역할 분담을 통 해 도서관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은계지구 주민의 독서 수요 를 충족하고자 13번째 공공도서관인 (가 칭)은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시 민이 오래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형 특성 화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인문 프로그램과 체 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도서관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주력하고 있 다. 올해 처음 시작한 '시흥 한 책'은 시민 참여로 선정된 올해의 책과 연계해 독서 릴레이, 작가와의 북토크 등을 진행하며 함께 읽고 토론하는 사회적 독서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독서동아리는 도 서관 유휴 공간 및 동아리 양성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독서 동아리한마당 개최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지역 내 다양 한 독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제9회 시흥 양시현/기자 책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도서관을 시

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특히, 시흥시는 관내 100여 개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도서관을 확대하고 있다. 시흥시 최초 영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청소년 특화 도 서관인 '연꽃작은도서관'을 개관했고, 기 존 '소래산작은도서관'은 학습모임을 통 한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도서관 이용률 을 높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거북섬동 주 민의 독서 편의를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도하는 도서관으 로 거듭나기 위해 시는 지난 5월 '시흥사 람도서관 시민 서포터즈'를 구성했으며, 서포터즈가 사람책 인터뷰 등 다양한 콘 텐츠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사람도서관을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시흥시 민과 시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흥이야 기' 아카이브 사업도 올해부터 시민 주도 로 추진한다. 향후 더 많은 시민이 문화교 실 등 도서관 유휴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을 통 해 열린도서관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고미경 평생교육원장은 "도서관은 더 이상 독서나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 다"라며 "누구나 휴식과 소통, 배움과 문 화 향유 등을 위해 일상에서 편하게 방문 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흥시 도서관이 마을의 거점이자 시민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진도군, 청정해역 진도 전복 판촉 행사 열어

### 메가마트 등 42개 대형마트에 진도 전복 7.5톤 판매

진도군이 진도 전복의 판매 활성화를 위 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전복 판촉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전복 판촉 할인행사는 최근 '진도아리랑 청정 수산물 직매입 행사'라는 주제로 ㈜ 메가마트(12개 지점)와 이랜드 킴스클럽 (30개 지점)에서 열렸다.

서남해안 청정해역 진도 바다는 냉수대 가 발달돼 있고 빠른 조류의 흐름으로 패 각에 부착물이 적은 진도 전복은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씹는 맛이 일품

또한 진도 전복은 어가가 직접 기른 미 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며, 각종 필수아 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 부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진도 전복을 구매 한 고객은 "진도 전복만의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에 반해 만족스러운 구매를 했 다"며 "더운 날씨에 지친 가족들을 위해 진도 전복으로 보양식을 준비했다"고 말

총 2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로 진도 전복은 총 7.5톤 이상, 약 1억 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원전오염수 방류로 시름에 빠진 어가들에 작은 위안이 됐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바 다의 산삼으로 불리고 청정해역 진도바다 에서 자란 영양만점 진도 전복이 최고의 품질임을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들이 진도 수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게 꾸 준한 품질 관리와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17일부터 말복인 8월 10 일까지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 랑몰'에서 전 수산물 30% 할인행사를 실 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진도 전복 을 포함해, 곱창김, 미역, 톳, 소금, 전복장 등 다양한 진도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

### 이상익 함평군수, 집중호우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



전남 함평군에 주말간 최고 289mm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16일 오전 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 지역 현장점검에 나섰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17시10분 을 기해 함평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으며, 14일부터 현재까지 신광면에 최고 289 mm, 군 평균 207mm의 비가 내렸다.

이상익 군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사태 위험이 큰 신광면 월암리와 토사 유출로 긴급복구를 실시한 손불면 월 천리, 학교면 복천리에 위치한 배수펌프장

아울러, 함평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호

우 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

신광면 연천마을 저지대 주민 5세대 6 명을 사전 대피시켰으며, 하천변 산책로를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1:1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한 위험 요인 감지 즉시 인근 주 민 대피 실시 등 인명피해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 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 다"며 "재해취약지역에 현장 점검과 지도 를 통한 선제적인 조치로 인명 피해 방지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등 재해취약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전남우수농수산식품신남방국가진출확대

### 전남도, 베트남 하노이 최대 번화가에 24번째 상설판매장 개장

전라남도는 베트남 케이(K) 열풍에 힘 입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 남 하노이 최대 번화가인 쭝화지역에 해외 24번째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고 본격 운 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도 동남아사무소와 완도군, 현지 상 설 판매장 운영사 K&K글로벌 트레이딩, 케이마켓(K-MARKET) 등 현지 식품 유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개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장한 상설 판매장은 하노이에 서는 두 번째, 전 세계 아홉 개 국가에 스 물네 번째 개설한 상설 판매장이다. 베트 남 현지 소비자와 한인을 대상으로 전남산 식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케이마켓은 지난 2월 김영록 전남도지 사가 베트남 순방 시 농수산식품 수출 확 대 업무협약을 한 K&K글로벌 트레이딩 그 룹 계열사로 베트남 내 136개 한국식품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개점한 상설 판매장에는 장류, 쌀, 소금, 김, 미역 등 13개 기업 45개 제품이 입점 했다. 개장 초기 효과적 홍보를 위해 대대 적 개점 행사와 함께 완도군의 김, 미역, 전 복 등 수산물 판촉 행사를 동시 진행했다.

고상구 회장은 "베트남에서 한국식품은



건강한 식품으로 신뢰가 높아 소비자 반응 이 매우 좋다"며 "한국 음식의 정수로서 남도음식의 맛을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전 하도록 전남 상설 판매장을 적극 홍보해 전남 식품 수출이 증대되도록 하겠다"고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올해 새 로 도입한 상설 판매장 공동디자인을 적용 한 케이(K)-마켓 상설 판매장은 하노이 중 심가의 고급스런 매장 분위기에 맞춰 개장 했다"며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통해 한 국 음식의 진수를 맛보는 상설 판매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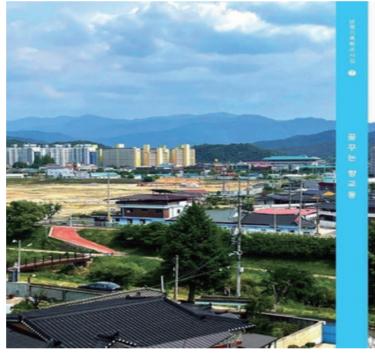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남방국가 중 떠오르는 수출시장으로 각광받는 베트남은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경제불황에서도 한국산 농수산식품 수출 이 최근 2년 10% 이상 증가했다

박종배/기자

# "남원의 기억과 모두의 꿈을 기록하다"

### 남원시, 남원기록화 조사집 제7권 '향교동' 발간



남원시가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원기록화조사사업의 7번째 이야기 '향 교동'을 발간했다.

향교동은 과거에는 남원읍성과 맞닿아 있었고 현재는 도심지역으로 수많은 인연 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으로 복원되기 어려운 남원의 모습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원다움관의 7번째 아카이빙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1차 '금동' (2017), 제2차 '동충동' (2018), 제3차 '죽항동' (2018), 제 4차 '왕정동' (2020), 제5차 '노암동' (2021), 제6차 '동부권' (2022)에 이어 약 5개월 동안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통 해 진행됐다.

총131쪽으로 이뤄진 이번 '향교동'은 역 사와 궤를 함께 하며 변해가는 도시 변화 를 각종 문헌, 통계, 고증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마을 지명의 유래부터 향교동 일원의 삶을 주민들의 기억과 기록을 토 대로 다시 그려내었다.

특히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 부터 외지에서 찾아와 어울려진 주민들 의 인터뷰와 각종 문헌, 신문기사 등을 통 하여 향교동의 다양한 모습을 수채화처럼 그려내었다.

이렇게 담아낸 남원기록화조사집은 시 민과 관광객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시 설 등에 배포하여 활용되며, 근현대기록 관 남원다움관의 전시콘텐츠로도 구성하

여 공개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 역사와 삶을 기록 하고 보존하는 것은 지역의 자긍심 고취 와 미래 콘텐츠 자산을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계속해서 남원지역과 문화를 아카이빙 하여 보존.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한루원, 남원예촌 등 남원 주요 관광지와 근접해 있어 연계관광이 가능한 '남원다움관'(남원시 검멀1길 14)은 남원 기록과 콘텐츠전시, 실감체험, 메타버스 등을 갖추고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 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 해남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초청 인문학콘서트

해남군이 매달 열고 있는 인문학콘서트 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로 널리 알 려진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초청한다.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오는 27일 해 남동초등학교 꿈누리센터에서 황지우 시 인과 함께하는 명사초청 인문학콘서트를 개최, 유홍준 교수와 함께'우리문화유산의 모태 - 해남·진도·강진'을 주제로 강연과 대담 등을 진행한다.

유홍준 교수는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 제3대 문화재청장과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명지대 석좌교수 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널 리 알리는 집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국내 답사기 저서 중 전국 14 편을 선정한 '아는 만큼 보인다'를 간행했

'문화유산답사'라는 말조차 새롭던 90 년대 중반,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답사의 붐을 일으켰고 첫 답사처로 유배의 땅 해남괴 강진을 꼽았다. 찬란한 문화유적의 보고 로'지역적 편애라는 혐의를 피할 수만 있 다면 남도 답사 일번지가 아니라 남한답사 일번지라 불렸을 답사의 진수처'라 칭하기 도 했다. 남도 특유의 태양과 선명한 붉은 색을 묘사한 부분은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 로 유명하다.

인문학콘서트는 누구나 사전접수를 통 해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땅끝순 례문학관으로 하면 된다. 백귀영 명창·박 준호 고수의 판소리 공연도 준비되어 있어 색다르고 재미있게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 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들과 함께하는 인문학콘서트인만큼 많은 군민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갑문/기자

# '우수기관' 선정

광양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평가,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 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 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의 특 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 개 지자체에 대해 7개 분야 13개 지표 를 대상으로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 (30%)를 실시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등이며, 13개 지표는 ▲지방공공요금 감 면 실적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추진 시 책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시민 생활과 직 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상수도 요 금,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했으며, 하반 기 인상 예정이었던 하수도 요금도 올해

동결을 결정했다.

또, 명절맞이 전통시장 지역물가안정 민 생현장 방문, 착한가격업소 모집 및 지원 확대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 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광양시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 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에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소상공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 완도군, 주민 생활 혁신 사례 사업 '3년 연속 선정'

### 약산 천동마을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 사업 추진



완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 모에 '약산 천동마을 회전 교차로' 사업 이 선정됐다.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 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 사례 중 전 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도입하고 자 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은 2021년 '지역 소상공인 희 망 대출', 2022년 '도심 속 한 평 정 원', 올해는 '약산 천동마을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 사업 선정으로 3년 연속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약산 천동마을 회전교차로 LED 유 도등 설치' 사업 구간은 금일읍, 생일면

으로 연결되는 국도 27호선의 길목으 로 평소 대형 활어차 및 소형 화물차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야간 운행 시 회전교차로의 인지가 어렵고 미관이 좋 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 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LED 유도등 설치 로 야간 운행 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회전교차로 내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를 위해 전 국의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 "가장안전한전남,도민에게신뢰받는전남경찰"전남 경찰청,산사태·침수등집중호우피해지역현장점검

전남경찰청은 지난 18일 집중호우가 연 일 지속됨에 따라 관내 산사태 발생 지역, 도로 통제구간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19일까지 전남권에 100~2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 어,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 및 하천변 저 지대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이 날 현장점검은 산사태가 발생(7.13. 경상 1명)하여 복구 중인 보성군 복내면 (보성-화순 경계지점), 교량이 침수되어 통제 중인 곡성군 오곡면 두곡교와 고달면 두가세월교, 산사태 등 발생 우려로 사전 통제 중인 구례군 노고단일주도로에서 진

이충호 청장은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산사태 복구 진행상황과 교통통제상황 등 을 파악했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재난현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 되는 만큼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예방활동을 하고, 항상 도민 눈높이에 맞 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 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역의 도로침수·산사태 등 발생 우려 구간은 사 전 순찰강화를 통해 위험 우려 시 사전통 제하여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청년 창업자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특강

순천시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청춘창 고에서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브랜 드 마케팅 전문가 김상률 대표를 초청하여 창업특강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순천시 관내에서 창업을 했 거나 준비 중인 청년의 창업 역량을 강화 하여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특강의 주제도 '청년 창업자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사전에 청년창업 대표공간 '청춘창고'에 입점한 청년의 의견 을 모아 정해졌으며, 이에 맞추어 국내 1호 브랜드 경험박사인 김상률 대표를 초청하 게 됐다.

김상률 유나이티드브랜드 서울오피스 대표는 20여 년 동안 SK텔레콤, 현대자 동차, 삼성전자 등 500여 개가 넘는 기업 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구축했으며, 이 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광운대학교와 건 국대학교 등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이

이날 특강은 일방적인 전달 방식의 강의 를 벗어나 창업 멘토-멘티로서 강사와 청 년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공 창업 전략 을 찾는 시간이 될 예정이며, 창업에 관심 있는 순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

순천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오는 8월 중에는 요식업 창업(경영) 전략을 주제로 맞춤형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으며, 창업을 꿈꾸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 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 겠다"라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2023, 7, 20,**⊜** 15:00~17:00

대상 (예비)참년창업가, 관심있는 시킨 누구나

문의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일자인팀(061-749-5734)

유나이티드브랜드 서울오피스 대표

# 강종만 영광군수, 기획재정부 방문 국비 확보 사활

### 지역현안 사업 국비 409억 원 반영 건의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난 18일 기획재정 부를 방문해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과 김 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내년도 영광 군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주 력형 e-모빌리티 공동생산 기업지원, 영광 우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법성정수장 개량 사업, 염산신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 업, 영광송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 업, 홍농성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 678억 원, 국비 409억



원 규모이다.

2024년 정부예산 편성을 위한 기재부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광군은 국 회·중앙부처·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를 유지하면서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종만 군수는 "정부의 긴축 재정운용 기조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 리 군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숙원사업 해 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규/기자

# 윤병태 나주시장, 문평면에서 가장 큰 마을서 8번째 주민 좌담회

### 80가구 120여명 거주 '남산마을' 주민 애로사항 경청

매달 1회 저녁 시간 마을회관을 찾고 있 는 윤병태 나주시장이 7월에는 문평면에 서 가장 큰 마을, 주민 수가 많은 남산마을 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문평면 산호리 남산마을회관에서 8번째 찾아가는 마을좌 담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좌담회는 해묵은 마을 현 안, 생활상 고충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불편을 참아왔던 주민들의 건의, 마을 숙 원사항을 경청하고 해소하고자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으로 추진 중이다.

8번째 좌담회가 열린 남산마을은 문평 면 소재지 남쪽방향으로 1km거리에 위치 해있다. 현재 80여가구가 주민 120여명 이 거주 중이다.

문평면의 안산(案山)인 남산을 배후로 두고 지리와 풍광이 좋아 제일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하여 '1남산(南山)', '2대실(大 實)', '3불로(不老)'라는 명성이 전해져온

특히 마을 앞쪽 광활한 평야인 산호들에 서 영농을 하는 주민들이 현재도 40농가 에 달해 예부터 부농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로 알려져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장갑수 마을이장, 한금 용 노인회장, 송명화 부녀회장을 비롯해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마을 숙원사업을



주민들은 '산호들 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설치', '마을 우산각 비가림 시 설 보수', '마을 경로당 도색 및 외부 화장 실 비가림 시설 설치', '마을 산책로 간이 쉼터 조성', '금당 저수지 준설 및 오륜저수 지 보수', '왕우렁이 공급 지원 확대', '하우 스 폐차광막 처리 방안' 등을 윤 시장에게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6월 말 집중호우 로 산호들 침수 현장을 점검했기에 많은 비에 침수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

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우산각, 경로당 화장실 비가림시설, 간 이 쉼터 등은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고려해 적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수지 준설, 보수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의·추진하고 소각이 금지되는 폐 차광막 처리 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겠다고 약속했

윤병태 시장은 "늦은 시간까지 환대해 주시고 화기애애한 대화와 애로사항을 전 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마을 숙원과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영암의 100가지 아름다운 풍경 '찰칵'

### 영암군, '사계절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10월까지 접수, 총상금 900만 원

전남 영암군이 오는 10월까지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운 비경을 찾는 '2023 영암 100경 찾기 사계절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사진과 영상 2개 부문으로 주제는 '월출산·영산강 비경' '해돋이·해넘 이' '마을보호수' '고택과 정자' 등이다. 지 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촬영된 작 품 중 미발표 사진·동영상을 출품할 수 있

개인 또는 2인 팀이 최대 2편의 작품으 로 응모할 수 있고, 중복 시상은 하지 않는 다. 작품 접수는 10월1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와 사진·영상 파일을 이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금은 총 900만 원으로 사진 20편 영상 8편 등 모두 28편의 입상작을 선정 한다. 최종결과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 월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 페이지에 있고, 안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영암군 관계자는 "광범위한 참여로 알지 못했던 영암 곳곳의 숨겨진 비경과 자연자 원을 공유해주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작 품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영암의 아

름다움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전했다. 오정현/기자

### 목포시, 붕괴위험 건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추가 안정성 확보 노력

목포시가 호남동 소재 5층 상가건물 붕 괴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정성 확보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건물소유자 등과 철거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해 철거 대책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내부 지지 대(잭써포트 30조 설치)를 추가로 보강하 고 건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예

또한, 안전 울타리가 설치될 때까지 현 장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직원 근무조를 편성해 차량 접근 통제를 연장한 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 량 통제는 5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축 소할 예정이다.

시는 사고 위험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 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 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건물 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차단 건축물 하중 완화를 위한 옥상 물탱크 배 수, 건축물 진동경보기 설치했고, 건축구 조기술사를 현장 투입해 긴급 안전점검 및 구조재 보강작업(잭써포트 설치 등)을 실

지난 14일 붕괴위험 신고 된 호남동 5 층 상가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 리트 구조물(연면적 2,278m²)로 1층 마 트, 2~5층은 사무실, 오피스텔로 사용 중

박종배/기자

# 화순군, 동복댐 하류 저지대 마을 주민 대피 독려 동복댐 홍수위 근접에 따른 선제적 조치

화순군은 18일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 운데 동복댐 인근 마을 주민 대피를 독려 하고 있다.

18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 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동복댐 수위는 168.5m로 만수위(168.2m)를 약간 넘어 섰다. 이에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 급 읍·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상 황을 전파하고, 마을 주민 대피 권고에 나

군은 우선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여 동 복댐 하류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개 마을, 사평면 장전1리 등 8개 마을로 가 급적 인근 친척 집, 마을 경로당, 고지대 안전 가옥 등으로 우선 대피하되, 불가피

한 경우 동복면 마을 주민들은 화순동복초 등학교 실내체육관을, 사평면 일부 주민들 은 복지회관에 대피토록 했다.

또한 응급구호 세트를 전진 배치했으며, 군청 실·과·소 직원들과 읍·면 직원들은 마 을 주민 대피를 지원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순군은 지 난 15일부터 직원 비상근무 3단계 체계로 전환해 재해 사전 예방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동복댐 범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급조치를 추진할 예정이

한편 동복댐은 지난 2020년 8월 7~9 대피 대상 마을은 동복면 연둔1리 등 7 일 집중호우 당시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마을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100여 명이 긴급대피하는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윤경호/기자



# 장흥군 용산면, 경로당 위문 순회

장흥군 용산면은 지난 17일과 18일 복 날 맞이 경로당 위문 순회를 했다고 밝혔

이번 경로당 위문은 용산면 행정복지 센터와 더불어 용산농협, 용산면 번영 회. 이장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용 산면의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추진했

경로당을 방문하여 음식과 물품을 전 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어르신 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로당에 일찌감치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자그마한 선 물에도 기뻐하시며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에도 위문을 와준 용산면 기관·사회단체

에 감사하다며 준비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겠다는 말을 전했다.

7월 1일자로 용산면장으로 부 임한 백창선 면장은"무더운 시 간대에는 외출이나 농사일은 자 제하고 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잘 이용하셔서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시 길 바란다"며 "이날 방문하여 전해 드린 것은 물품뿐만이 아닌 마음을 함께 전달해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기울여 함께하는 용산면을 만들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 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 알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에 따라 통행 제한 불가피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천은사 주차장 입구 ~ 성삼재 ~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L=14km]의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

군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 령됨에 따라 통행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통행을 제한 하고 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제한 구간은 높은 곳에 있어 기상 예측이 어려 운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군은 노고단 일주도로뿐 아니라 관내 도로 및 사면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유 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 되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 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성현/기자

# 봉화군,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참가자 모집

### 귀농.귀촌 고민될 땐 봉화군에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봉화군은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 까지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 그램 2기 참가자 3가구 6명을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 집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봉화로의 귀농에 관심 있는 만 18세~65세 이하의 도시민 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농촌 거주 및 영 농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참가자로 선발되면 오는 8월 28일부 터 11월 25일까지 3개월간 소천면 협곡 구비마을에 거주하면서 사과 선도농가 방 문, 농가 일자리 체험, 지역탐방 등 다양 한 계절별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받을

지난 1기 참가자 A씨는 "처음 봉화군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름다운 경치와 풍 부한 임야자원이었다."며 "프로그램에 참 가하는 동안 귀농 농가에 방문해 귀농 시 유념해야 할 것에 대한 조언을 듣거나 지 역 명소뿐만 아니라 군의 여러 관공서를 견학하며 귀농지로서 봉화가 가진 이점을 더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내년 초 봉화군에 정착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다른 참가자 B씨는 "농촌에서 살아 보기의 일자리 체험과 선도농가 방문은 귀촌을 준비하는 우리가 농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3개월간 지역에 머무 르기 때문에 여러 후보지의 입지 조건을 비교해 신중하게 정착지를 선택할 수 있 었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경북도,수해지역감염병발생대비예방수칙준수당부

### 임시주거시설 거주자에 대해 손 씻기.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주의

경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 생환경이 취약해지고 모기 등 매개체가 증 가하면서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예 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 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간염, 장관염 증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 조성으로 인한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 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 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 등이 있다.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 씻기 등 위생수 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침수지역에 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 (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 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 야 한다.

또 모기 등 매개체 급증을 방지하기 위 해 거주 지역 인근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방제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 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 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 리 전·후와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안전한 물(포장된 생수 나 끓인 물)과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재료 세척 등 조리과정에 참 여하지 않도록 하며, 물이 닿거나 일정시 간(약 4시간) 이상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식품의 올바른 보관이 어려워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조리 수칙 및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 2 모기매개 감염병

수해지역에서는 물 웅덩이 등에서 모기 가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모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 덩이, 막힌 배수로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야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며, 가정 내 모 기장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③**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질환수해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렙토스피 라증, 유행성 눈병(유행성각결막염, 급성 출혈성결막염)이나 피부병도 주의하여야

피부가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렙토스피 라증이나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 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 작업 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된 작업복과 장화 등을 착용하고, 피부에 상처 또는 찰 과상이 있는 경우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수해복구 작업 중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며, 작업 후 노출 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또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또는 대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밀집 환경 으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정기적인 환기 등 호흡기

Fick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장마·대풍과 함께 찾아오는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임시거주시설 4개 시군 140개소에 마스크, 소독제, 체 온계 등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방역기 동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수인성·식품매개 및 모기매개 감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 지역 인근 하천이나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 을 드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음 식물 섭취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설사 등과 같은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

윤근수/기자

# 안동형 일자리 사업, 혁신적 창업생태계 기반조성 '눈길'

### 단계별 맞춤형 지원 통한 창업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 아이돌봄 사업의 종합상황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개소

대구광역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에 나서다!

대구광역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 보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이 기 위해, 오는 7월 19일 아이돌봄 광역지 원센터를 개소하고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기관도 3개소로 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 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 서비스 와 만 12세 이하 아동을 틈새 시간 동안 돌 보는 시간제서비스로 나뉜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 학교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 부모 등의 경 우 출근 후 또는 퇴근 전까지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 동안 지역의 9개 구·군 가 족센터를 통해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 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며,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소식을 개 최한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대구 9개 구. 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 스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지역의 아이돌보 미 수급 조정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아이돌

보미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 는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 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

또한, 대구광역시는 우수한 아이돌보미 를 양성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의 보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그동안 달서구가족센터에서만 아이돌보 미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 아이돌보미 수급 의 불균형으로 부모들은 필요한 시기에 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 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체계 개선 을 위해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으로 추가 지정했다.

앞으로 아이돌보미를 수시 양성하고 전 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지역 의 우수인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맞 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성과와 개

선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 창업과 일 자리 확충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1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 든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하여 기업과 함께 만드는 지역혁신 일자리모델이다.

안동시(일자리경제과)와 안동대학교(안 동형 일자리사업단 창업커뮤니티센터)는 '창업은 놀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기 업 인턴십 지원, 창업생태계 구축, 학생창 업 육성, 창업기업 지원, 지역 창업 축제인 BETA 페스티벌 개최 등 창업 전주기에 걸 쳐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 분야에서 인력풀(pool)을 구축 하고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이다. 교육형 인턴십은 1인당 최대 210만 원, 취업연계형 인턴십은 1인당 최대 150 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실 증지원센터 등 지역 17개 기업에서 35명 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15명이 정규직 으로 채용됐다. 지역기업은 인턴 기간을 거쳐 검증된 인재를 고용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신규 채용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 를 절감한다. 또한, 지역인재는 원하는 기 업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 창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창업 7년 미 만의 기업들이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토대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4개 회원사 의 참여 속에 주 2회, 총 46회에 걸쳐 다 양한 주제로 창업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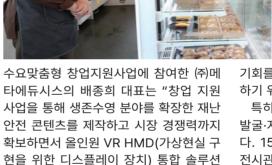
램을 제공했다. 또한, 창업닥터를 통한 상 시 멘토링으로 예비 및 기 창업자들의 애 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 학생창업 육성사업은 창의적인 아이 디어와 기술을 가진 대학생 창업자들을 지 원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아이템 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창업 준비 수준, 기술의 우위, 사업화 가능 성 등을 심사하여 6팀(명)을 선발하여 사 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팀에는 창업활 동비 각 60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 는 1개 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며 탄탄한 기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사업에 참여 중인 SG상상공작소 팀장 박민재 학생은 "학생창업에서 실제 창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 려움도 많았지만, 다양한 공모전과 창업동 아리 사업에 참여해 양질의 교육과 상담, 창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라며 "교육공학 전공을 살려 대학생 학습지원 서비스를 연구·개발함으로써 상상만 하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라고 소 감을 전했다.

△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가부 터 창업 7년 미만까지의 창업기업을 지원 한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확대 지 원하는 '창업 첫걸음 지원사업', 유망기업 의 발돋움을 지원하는 '창업 돋움 지원사 업',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 성장 지원사업', 창업가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하는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사업'으로 구성 된다. 지난해 총 31개의 기업이 참여해 5 개의 신규사업자 등록, 18명의 신규고용 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

2021년 창업 성장 지원사업과 2022년



△ 지난 5월, 안동댐 세계물포럼 기념센 터 전망카페를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새롭 게 오픈했다. 안동시와 K-water,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은 지난해 개최된 BETA 페 스티벌 2022 카페창업 경진대회에서 선 발된 청년 예비창업가에게 1년간 카페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망 카페의 첫 창업자가 된 김기현 씨는 '포크 (Fork)와 핑거(Finger)푸드를 즐기는 디 저트 공간'이라는 뜻인 픽(FFICK) 카페를

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

△ BETA 페스티벌은 'Be an Entrepreneur aT Andong'의 약자로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라는 의미의 경 북 최초 스타트업 중심 창업축제이다. 창 업기업과 투자자 등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 하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문화의 저변을 확산 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개최해왔다.

특히, 지난해 축제에서는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아이디어톤 대회를 개최했 다. 15개 스타트업 생산제품을 홍보하는 전시관 마련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 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스타트업 제품 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또한, 투자 및 창업컨설팅 상담도 진행하며 창업 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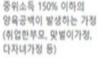
지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창업 축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11월 1일 부터 3일까지 사흘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 (ADCO)에서 전국단위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누구나 기회가 주어 지는 창업·창작 도시'구현을 위해 앞으로 도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펼쳐 안동이 창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라며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 으로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 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 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 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지원대상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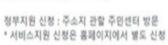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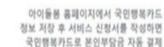






아이돌봄 서비스

만12세 이하의



# 혜택 주낙영 경주시장, 하반기 주요사업 점검...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계획 등



돌봄서비스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 17일 오전 시청 알천홀서 7월 확대간부회의 열고 하반기 중점사업 점검

제고도 언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알천 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운동 장 이전 건립 계획,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준비 상황 등 경주시가 하반기 추 진할 중점사업을 점검했다.

먼저 주 시장은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계 획을 지목해 추진상황을 살폈다.

이는 시민운동장 시설노후화 및 공인대 회 기준 미달에 따라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사업이다.

다음달 1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으 로 실무 담당자, 시·도의원, 체육회 관계자, 체육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올해 4월 착수에 들어갔 으며, 오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주요 내용이 다 뤄질 예정인데, 먼저 종합운동장 도입 시설 에 대한 최적 규모가 결과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정후보지 선정 기준안도 도출될 예 정이다. 특히 최종 후보지를 발굴하고 평가 할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회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으로 경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주 시장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 구대회 개최를 통한 경주 스포츠 도시 위상

이번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1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경주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소 년 축구대회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일 작정이다.

이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 대규모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대회는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상 참가 팀은 학교 및 클럽을 합쳐서 610 여개 팀이다. 또 일본 나라시와 중국 양저우 시에서도 참가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 경북화장품기업,미국최대미용전시회서 1천

185만 달러 수출상담

경상북도 공동관 구성, 세계 3대 미용전시회 미국 코스모프로프 참기

경북도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 일간 '2023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 프로프(Cosmoprof North America Lasvegas)'에 참가해 총 306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1천185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전시회는 세 계 3대 미용 전문전시회로 화장품 소재 및 완성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 통사 및 온라인 플랫폼에 이르는 제품 공 급망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 대부분이 참여 하는 중요 행사다.

올해 총 40개국 1천415개사가 참가했 으며 약 4만 명의 참관객들이 전시회를 찾

경상북도 공동관은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마스크팩, 기초화

장품, 핸드크림 등 전통적 미용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들과 함께 입술 보호기능 립스 틱, 피부.두피 검사기, 샤워필터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기업 등 총 10개사로

경산에 소재한 '허니스트'는 글로벌 호 텔 순위 3위 규모(2022년 기준)인 현지 호텔에서 약 250만 달러 규모의 욕실용 편의용품 개발과 납품을 요청받았다.

높아진 한국 미용제품의 위상에 따라 온 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높은 상품성을 보유 한 도내 기업들에게 앞다투어 입점을 제안 하기도 했다

'코리아비앤씨'는 세계 최대 온라인몰인 아마존(Amazon)에서, '파워플레이어'는 세계 최대 건강 보조제품 플랫폼인 아이허 브(iHerb)의 입점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한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세계 3대 화장품·미용 박람회에 최초로 서 "한류문화가 불러온 긍정적 인식으 로 미국 등 선진시장을 도내 우수 미용

만큼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관 련 지원을 더욱 강화해 기업들의 해외시 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

한 용수량을 확보한 과원으로 수요조사(신

# 청송군, 반복되는 과수 서리피해 선제대응 나선다!

- 과수 미세살수장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도 청송사과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겠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는 지난 7월 17일 영양군 공간정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업무 설명 영양군은 최근'영양 자작나무숲 관광

영양군, LX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

정보업무 설명회'개최

LX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례 및 스마트 행정 구현

지 명품화'등의 산림자원 활용 정책 사업 및'삼지수변공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인구 정책 분야 군민 정책 제안 공모'등의 활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LX대구경북은 영양군 공간정보정 책 업무을 지원할 수 있는'디지털트윈 기 반 공원 관리 서비스','산지전용 허가 지원

및 이력 관리'등의 LX플랫폼 서비스를 통 한 지역 현안 해결 사례를 설명했다.

설명회 후 공간정보 기반 정책 지원을 위 한 LX플랫폼 활용 방안 및 향후 영양군 공간 정보업무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권정순 지사장(LX대구경북 청송영양지 사장)은"영양군과 LX대구경북이 공간정 보 업무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함 께한 첫 자리라 의미가 깊다"면서"앞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정책에 발맞춰 영 양군의 스마트행정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 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영천 남부동 곳곳에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퍼져

영천시 남부동에서는 17일 제헌절을 맞 아 관내 주요 도로변, 남부동행정복지센터 입구, 봉동 상가 등에 태극기를 집중 게양 하며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태극기 달기 운동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국방 수도 정체성 확립 및 나라 사랑 실천을 위해 실시했으며 동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함께 봉동 상가 10여 개에 도 일제히 태극기를 게양했다.

태극기 게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이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볼 때 주택 대문 또는 아파트 베란다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서성호 남부동장은 "제헌절을 맞아 나 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 여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한편 남부동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 동의 일환으로 6월 중 관내 노후 가로기 꽂이대 900여 개소에 대해 부실 시설물은

철거하고 신규로 500여 개소의 안전하고 튼튼한 꽂이대로 교체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남부동의 이미 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수해복구 성금 2천만원 전달

### 이재혁 사장, "이번 수해뿐 아니라 도내 발생 모든 재난 재해 적극 대응하겠다."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들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 사(경북지사)에 전달했다.

관련 금액은 수해복구에 활용될 예정 이다.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의 경우 호우 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영주, 문경, 봉 화 등의 경상북도 지역 역시 이번 집중호 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 밖에, 공사는 이번 수해와 관련, 이재 민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대한 적십자사'가공동으로 제작한 재난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며, 재해현장에 임직원을 파 견하여 수해복구에 힘쓸 예정이다.

이재혁 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상북도가 특히 큰 피해를 겪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모 두 집중하여 수해복구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 수해뿐 만 아니라 도내에 발생하는 모든 재난·재해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영덕문화체험학기' 진행

- 외국인 유학생 36명 2박3일 간 영덕문화 체험
- 김광열 영덕군수, "방문을 환영하며, 군의 청정한 자연과 전통문화 맘껏 즐기시길 바래"



영덕군은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영덕군-대구한의대학 교 세대통합지원센터에서 국제 의학대학 교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로컬 협력사업 추 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영덕문화체험학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 트남, 러시아 각 국가의 의과대학 유학생

들이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정규 교과수업을 수강하고 영덕군과 연계해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유학 생 대표 Nafisa Raymova는 "바다를 보 기 쉽지 않은 나라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번 대학 간,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영덕군

의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광열 영덕군수는 "아름다운 우 리 영덕군을 방문해주신 각국의 유학생 여 러분을 환영하며, 우리 군의 청정한 자연 과 전통문화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시길 바 란다"고 화답했다.

장문화/기자

# 영주시 수해 현장, 군부대 지원 '잇 따라',수해민에 큰힘

- 50사단, 2신속대응사단 210여 장병 복구활동에 '구슬땀'

- 박남서 영주시장, "영주시는 지원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돼도록 지원 및 편의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 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에 군부대 긴 급 복구지원이 잇따르며 수해민에 큰 힘이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소 속 장병 100여 명을 영주시 수해 피해지역 에 투입해 복구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장수면에 굴삭기 3대와 덤프트럭을 1대를 지원하며 주택 토사 제 거, 도로개통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은 무더위와 비가 내리는 악 조건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복 구활동에 임했다.

또,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은 장병 110 여 명을 지난 16일부터 장수면, 안정면, 단 산면, 상망동 등에 배치해 복구 지원활동 을 펼치고 있다.

장병들은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주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범람지역 물막이 작업 등을 수행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로 수 해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이진석 대대장(제2신속대응사단)은 "국 민의 군대로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 민들을 위해 임무수행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며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이 정 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군 장병 여러분의 수해복구 지원활동이 지역 곳곳에 펼쳐지 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지 원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편의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2신속대응사단, 제50보병사단 소속 장병들은 피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지속 해서 영주시 수해복구현장에서 긴급 복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영양군,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7월 17일 한수원(주) 본사(경북 경주시)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2.~'36.)' 확정('23.1.11.)에 따라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신청 일환으로 사업 시행처인 한수원(주)과 예비 후보 지자체 인 경북 영양군 및 경남 합천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금일 협약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 롯하여 황주호 한수원(주) 사장 및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 했으며, 참석자들은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를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 및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 양수발전소 사 업자 선정 추진 및 사업유치를 위한 노력 ▲ 사업자 선정 후 인허가 ▲ 이주민 지원 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 발전사업 등 향후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협력 분 야를 명시했다.

영양군은 지난 4월 24일, 신규 양수발 전소 건설 예비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70여일 간 모범적인 민관협업체계를 구 축하여 결의대회를 비롯한 서명운동 및 전 군민 챌린지까지 범군민 유치활동을 펼쳐 왔으며, 6월 30일 군민적 염원을 담아 신 규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주)

에 제출한 상황이다.

오도창 군수는"먼저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주호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선 사업 자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결같이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 들과 범군민 유치위원회에도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만 6천 영양군 민과 함께 향후 양수발전소 사업이 원활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에 적 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 사업자 선정 은'발전사업 의향조사 공고(전력거래소)' 및'우선순위 심의.결정(산업통상자원부)' 을 거쳐 올해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보건환경전문분야실무교육으로청년취업지원나서

### 2023 하절기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카데미 교육 실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첨단분석 기기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 내 이공 계 대학생 취업경쟁력 강화와 과학 인재양 성을 위해 7월 17일부터 2주간 '2023 하 절기 보건·환경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카데

미'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시작한 분석 기기 마이스터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지역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험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형태 로 운영된다.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방학 기간을 이용 해 진행해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3년 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교육을 시작

마이스터 아카데미는 2013년 1기 교육 생 29명을 시작으로 15기까지 총 400여 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이번 16기 교육과정에는 지역 내 3개 대학의 환경, 화학공학, 생명공학, 생명과 학전공 대학생 8명이 입교해 대학원식 1:1 분석 실습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 행한다.

또 교육생들의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분야별 이론교육과 기기활용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관련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최 신 정보 제공을 위해 연구원 연구관(사)이 직접 취업 멘토링 특강도 진행한다.

손창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



구원에서 수행하는 분석기기 마이스터 아 카데미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교육과 는 달리, 최신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특성화된 실무교육이다. 지역 대학생들에 게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 대학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학생 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

윤근수/기자

# 윤경희 청송군수, 초등학생들과 특별한 만남

– 안전한 등굣길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학생들 편지 화답

– 윤경희 군수,"항상 군수실은 활짝 열려 있으니 찾아와 진솔한 이야기 들려주길"



윤경희 청송군수가 취임 1주년을 맞 아 각계각층과 소통행정 및 공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 데, 지난 7월 17일 청송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눈길 을 끌고 있다. 이번 만남은 청송 초등학교 후문 어 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에 대한 학생들 의 감사편지에 윤경 희 군수가 빼곡한 행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을 내 갖게 된 것이다. 청송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4월 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인하 여 학교 후문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후문 내리막길이 급경사로 이루어진데다 바닥이 미끄러워 학생들의 넘어짐 사고가 발생하 기도 한다는 소식을 접한 윤경희 군수는 긴 급히 미끄럼방지 포장과 차선규제봉 설치

민호 학 생은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군수님은 늘 바쁘신 분이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 리 어린이도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친절한 분임을 알게 되었다."며 "윤경희 군수님이 청송에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고 큰 애정을 표현했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의 미래이고 희망 인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

과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행정을 펼치겠다. 언제든지 청송 군수실은 활짝 열려 있으 니 찾아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 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상황과 향후계획 설명 시간 가져

### 실종자 수색과 신속한 복구에 행정력 집중…"군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 안전문자등 재난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길"



예천군은 18일 오전 10시 예천군청에서 지난 13일부터 4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역에서 발생한 피해현황을 군민들과 공 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학동 예천군수는 "먼저 이번 호우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 게 되어 송구스럽고, 참혹한 상황에 큰 슬 픔을 억누를 수 없다."며, "용문.효자.은풍. 감천면에 집중된 폭우로 17명의 인명피해 가 발생해 18일 9시를 기준으로 사망 9 명, 실종 8명이고, 현재도 실종자 수색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군 전 지역에 전례 없이 쏟아 진 비로 448명의 주민이 마을회관으로 대 피했고, 예천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임 시거주시설에는 40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치 현황에 대해 김 군수는 "물폭탄이 남긴 주민 생활 곳곳의 피해 현장을 긴급

복구하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아직도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지 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공무원 2,335 명, 경찰 625명, 소방 716명, 군부대 2,949명, 민간 1,450명 등 18일 누적 총 계 8,07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또한, "도로.제방 유실, 상 하수도시설 파손, 주택파손.매몰, 축사파손, 정전.단 수, 농경지 침수 등 사회기반시설과 전 분 야에 응급 복구를 위해 420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나, 여전히 지속되는 호우로 피해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

군에서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를 최우선 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복구가 필요 한 지역을 신속히 파악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 별재난지역 선포'도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안타깝게 인명피해를 당한 사망자

추모를 위해 17일부터 21일까지(1주일) 애도기간으로 정해 검은 리본을 착용과 함 께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이재민 관리와 시설응급복구, 자원봉사자 등 분야별로 전 담부서를 지정하고 지원과 복구에 전념해 나갈 예정이다.

김 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 났지만, 이제부터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 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 든 행정역량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 함 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 다.

끝으로 "군민들께서도 이 모든 어려움 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 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 로 안전문자 등 재난안내에 귀를 기울여 위험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이 경상북도 2023년 상반기 지 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최우 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는 재정운용 효율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종합 예산집행 평가다.

군은 이번 수상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경상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실적평가에 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의성군 은 5년 연속 경상북도'최우수기관'으로 선

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노력을 인정받았다. 의성군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

상 3,817억원 중 2,625억원을 집행하여 68.8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소비투자 분야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 할을 하고자 당초목표 1,328억원 대비 1,865억원을 집행해 537억을 초과 집행 했다. 이는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 재정집행을

위해 애써준 관계 공 무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하반기 에도 군민들이 피부 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 역경제 활성화에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말 정금자/기자



# 김태흠충남도지사, 대통령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해 피해·대응 상황 등 설명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7일 윤석열 대통 령에게 도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금강 주변 비닐 하우스 시설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 서 영상으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김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 단체장과 중 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 상황 및 전망 △집중호우 대처 상황 △농 업 분야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 △충남북, 경북 지역 대처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도내 피해 상황과 도와 시군 대처 상황을 설명한 뒤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 록 지하차도, 산사태 우려 지역,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

김 지사는 이어 향후 댐 긴급 방류 시 중 앙부처와 수자원공사, 지자체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호우는 금강벨트를 중 심으로 집중돼 방류가 불가피한 상황임은 이해하나, 대청댐과 용담댐이 집중호우와 동시에 방류하다 보니 지천 물이 금강 본 류로 유입되지 못해 하류 지역 농경지 침 수 등의 피해가 더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의 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특히 "호우 피해 가 큰 청양과 부여, 공주, 논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조기 선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금강 주변은 비닐 하우스 등 시설작물이 집중돼 있는 지역" 이라며 "멜론과 수박 등 출하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시설농가에 대해 별도의 특별 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별도 보고를 통해 "특별재 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비닐하우스 시 설작물은 농약대와 대파대 등 일부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부여 침수 피해 비 닐하우스 단지 점검 사실을 언급하며 "출

하를 앞둔 수박밭이 물에 잠기며 억대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규정으 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며 특 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

최정근/기자

# 야한(夜寒) 시티투어 버스 운영 태백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밤

여름밤(夜) 시원한(寒) 태백에서 즐기는

(夜) 시원한(寒) 태백에서 즐기는 야한(夜 寒)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야한(夜寒) 시티투어버스는 매주 토요 일 저녁 6시30분부터 10시까지 탄탄파 크, 오로라파크, 야시장, 축제장 방문과 별 (은하수) 체험으로 이루어지며 별빛코스 와 축제코스로 나누어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3,000원, 미취학아동 은 무료이며 태백역에서 출발한다. 예약방 법은 태백관광홈페이지 또는 태백관광안 내소에서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다.

야한(夜寒) 시티투어버스는 2023년 관 광재도약의 해를 맞아 오로라파크와 탄탄

파크 야간개장(2023.7.21.~8.11.), 제8회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2023 태 백 선선 페스티벌)와 더불어 열대야 없는 태백의 여름밤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콘텐츠로 기획됐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 운영을 통해 빈 틈없이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기회를 제공 하고, 태백고유의 자연환경 야간콘텐츠와 축제 등을 정례 코스화해 체류형 관광을 통 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라며, 시원한 여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토토米 원주빵! 판매 인기!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특산자 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개 발된'토토米 원주빵'이 소비자에게 큰 호

지난해'토토米 원주빵'은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 기대속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 광 먹거리로 조엄고구마와 치악산복숭아 를 활용한 총 8종(크림빵 2종, 슈 2종, 샌 드류 2종, 복숭아크럼블비스킷, 샤브레쿠 키)과 즉석빵이 육성됐다.

이에 따라 올 3월'조엄고구마크림빵'이 먼저 본격 출시되면서 지정된 판매장 2개

소에서 월1,600여개 정도의 빵들이 팔리 고 있어 원주 시민과 지역을 찾은 관광객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7월 치악산복숭아 출하 시기에 맞춰 복숭아크림빵 레시피 보완을 마무리 짓고 샌 드류와 쿠키류 등의 포장 패키징을 마치고 올해 안으로 본격적으로 생산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난해 3번의 평가회를 거 쳐 출시한 만큼 원주시를 대표하는 관광 먹 거리로 자리 잡도록 보완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2023 당진 문화재 야행! 당찬 당신, 당진을 오라!

당진시에서는 오는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합덕제 일원에서 수리 농경 역 사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문화재야행을 개 최한다.

두 번째 야행은 여름과 가을 2회 진행하 며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시 (夜市), 야숙(夜宿) 총 8야로 구성되어 당 진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연 경관을 다양한 체험형 행사로 진행한다. 특히 합덕제는 여름의 연꽃이 장대한 수변공원을 조성하 며 양수리 두물머리 연꽃단지와 비견되는 수도권에서 언제든 가깝게 갈 수 있는 관 광지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름의 문 화재야행은 합덕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 으로 연꽃과 자연생태에 관한 주제로 여름 휴가철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볼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합덕제의 아름다운 연꽃과 어울리는 야 간 경관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한 지 등공예를 행사 일주일 전부터 설치함으 로써 행사장의 자연풍경과 아름답게 어우 러질 예정이다. 합덕제의 연꽃단지와 전통 한지 등공예의 조화로운 경관연출을 통해 밤에 펼쳐지는 체험행사로 당진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던 연암 박지원을 디지털휴먼 역사해설사 로 등장시켜 당진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백성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농경혁신 을 꿈꿨던 면천군수 연암 박지원이 들려주 는 당진의 역사, 문화 및 본 행사를 홈페이 지에서 알기 쉽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열하일기에서 연암 박지원이 수레 와 농경의 최신문물을 강조했듯이 본 행사 에서는 당나귀 수레마차와 농경에서 필수 적인 이동수단인 우마차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보기 드문 색다른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축제기간에 맞춰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등 주변 문화시설도 본 행사에 맞춰 개방 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며, 각양각색 의 조명과 함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해진 두번째 당진문화재야행만 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당진은 조선시대 3대 저수지였던 합덕 제에서 개최되는 문화재야행을 통해서 아 름다운 연호지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당진시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충청남도 가 후원하며 문화플랫폼 아티온 주관으로 진행하는 2023 당진문화재야행의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천안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해 복구 최선

# 7월 읍면동장 회의 개최…박상돈 시장,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다할 것 당부

천안시는 지난 17일 박상돈 시장 주재로 영상회의 방식의 7월 읍면동장 회의를 개 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주말 발생한 수해와 관련 각 읍면동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당초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 회의 로 읍면동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23 천안 K-컬처박람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주민 홍보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수



해 복구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며 영상회의로 긴급히 변경했다.

각 읍면동은 지난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을 비롯해 토사 유 실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대비책 마 련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읍면동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 는데 가장 접점에 있는 책임자인 만큼, 늘 현장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 전수

식품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 유공, 내수활성화 위한 국비 확보 유공 등 강원특별자치도청 공무원 7명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17 일 오후 2시 30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게 국무총 리 표창을 전수(傳授)했다.

이번에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공무원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 세로 솔선수범하는 6급 이하 실무 공무원

이며, 보건환경연구원 배철민 보건연구사 등 7명이다.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3 년간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표창을 전수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우리 직원 들이 각 분야에서 도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이 결국에는 도민의 복리증진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

이등원/기자

### 아산시 '충남 최초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시민 호평 이어져

아산시 보건소가 2022년 10월 충남 최 초로 운영을 시작한 임산부 및 만 2세 이 하 영유아 대상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에 수혜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건강한 미래 를 위한 공평한 출발'을 목표로 전문교육 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 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아기와 산모의 건 강 상태를 살피고, 영아 발달 관련 상담과 양육에 대한 교육 및 심리적, 사회적 지지 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나 출산가정 이라면 소득수준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누 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사업 시작 후 232 가구의 출산가정을 방문했으며, 수혜자들 의 호평 속에 신청자 수도 늘고 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의 한 수혜자는 "외출도 어렵고, 주변에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에 게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를 배울 수 있 어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주신 덕분에 더 편안하게 아기 성장 발달 등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장동민 아산시 보건소장은 "시에 거주 하는 임산부와 모든 영유아의 건강하고 평 등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에 이용 가정의 호평이 이어져 담당자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 다"며 "정보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산가정과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영유아 건강관 리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보건소가 충남 최초로 시작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시에 거주하 는 모든 임산부 및 출산가정은 이용을 신 청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시행

청주시는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 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

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 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 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 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 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 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 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 이 소요 됐으나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 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사업주체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18일 청주시청 제 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주시 주택건설사 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 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 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영주시, '돈 되는 잔대' 본격 상품화, 부가가치향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약용작물 '잔대' 가공품 개발로 농가 소득향상 기대



영주시가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 중 인 '잔대'의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섰다.

잔대는 ▲면역력 향상, ▲항노화, ▲기 억력 개선, ▲기관지염 치료 기능 등의 효 능이 있고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며 1 년에 2회 이상 수확이 가능한 신소득 약용 작물로 농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 터 농업체험교육관 및 연구 시험포장에서 잔대의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최 종보고회와 잔대 우량종근 다수확 실증시 험 전시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안동대학교 손호용 교 수, 경북전문대학교 황은경 교수, 국립산 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충렬 박 사와 잔대발전연구회 등 20여 명이 참석

지난 4월 착수한 '신소득 작목 부가가치 향상 연구용역'은 잔대를 이용한 가공품 (잔대건강음료,

장아찌, 말차, 젤리, 양갱)을 개발해 농 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잔대의 강력한 항 산화, 항혈전, 항당뇨 활성 효과를 입증했

다. 특히 잔대잎의 폴리페놀 함량이 잔대 뿌리보다 10배 이상 높아 잔대잎을 이용 한 말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용역 최종보고회와 함께 우량 종근 생산과 관련한 실증시험 전시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농업기술센 터 시험연구포장에 삼색부직포, 2중 차광 막, 볏짚 및 무피복 등의 시험포를 만들어 잔대 종자를 잔대발전연구회 회원들이 직 접 파종, 실증시험을 진행해 왔다. 실증은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정충렬 박사(남, 49)는 "영주는 일교차 와 일조량,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천혜 의 조건을 갖춘 소백산 자락에 위치해 다 른 지역과 차별화된 잔대의 재배가 가능하 다"며 "지역만의 환경적 강점을 살리고 차 별화된 홍보·유통 전략을 세운다면 '돈 되 는 잔대'는 농가소득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신소득 작목 잔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 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기술개 발팀(☎054-639-7386)로 문의하면 된

### 한울본부, 기성면 백일홍거리 안전데크 설치 지원

- 정명1리 김정곤 대표."발전소 주변 외 지역에도 아낌없는 지원해줘"감사 뜻 전해 - 이세용 본부장.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다"밝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백일홍거리 안전데크 설치 사업'에 약 1억 1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기성면 백일홍거리는 백암온천과 덕구 온천 백일홍 꽃길에 이어 울진군의 대표적 인 꽃길로 백일홍이 만개하면 그곳을 지나 가는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 명소이나,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한울본부는 안 전데크 설치를 지원하였다.

정명1리 마을회 김정곤 대표는 "마을의

자랑인 백일홍거리에 안전데크가 생겨 지 역주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 며, "한울본부가 발전소 주변 외의 지역에 도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 정말 고 맙게 생각한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안전데크 설치를 통 해 백일홍거리가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명 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 해서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호우대처상황점검회의…호우대응총력

### 최만림 행정부지사, "집중호우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 기할 것"

경남도는 18일 오전 8시 중대본 회의 후, 행정부지사 주재로 호우 대처 상황 점 검 회의를 개최하고 호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도내에선 15일 전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18일 오전 8시 현재 도내 평 균 누적 강수량은 518mm로, 남해 858 mm, 거창 670mm, 하동 639mm 순으 로 많은 비가 내렸다.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내일 새벽까지 가 이번 장마의 가장 큰 고비로 예상되 며, 많은 곳(지리산 부근)은 350mm까 지 예보되어 있다"라며, "지속되는 호우 로 직원들이 많이 지쳐있겠지만, 사면붕 괴 위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등 피해 우려지역을 읍면동과 협조하여 집중 점 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 라"라고 당부하며 "특히 피해 우려지역 은 반드시 주민 대피를 실시할 것"을 강 조했다.

또한 "조금이라도 징후가 있으면 즉각 적으로 도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존 통제구 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둔치주차장 26개소, 하천변(산 책로, 세월교) 184개소, 침수 우려 도로 31개소를 사전 통제 중이며, 17개 시군 725세대 978명이 사전대피 중이다. 도 와 시군 공무원 4,142명이 2단계 비상 근무 중이며 기상특보 확대 시 재대본 3 단계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행동요령과 시민안내를 강화하고, 갑작 스런 호우특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단 계별 실무반 편성, 비상대비태세 유지, 기상 특보 시 즉각적인 재대본 가동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취약시간대(밤~새벽) 국지성 험지역·계곡, 야영장 등에 대한 예찰과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

장재현/기자



# '화합물반도체 디텍터 한일 공동심포지엄' 부산에서 개최

### 7.18. 14:30, 부경대학교 미래관 2층 씨이오(CEO)홀에서 열려

부산시는 오늘(18일) 오후 2시 30분 부 경대학교 미래관 2층 씨이오(CEO)홀에 서 전력반도체 산업 주요기업인 ㈜비투지 가 '화합물반도체 디텍터 한일 공동심포지 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화합물반 도체 디텍터 심포지엄'은 그동안 일본 내 에서 화합물반도체 검출기(디텍터) 연구 개발의 최신동향을 공유하고 일본 내 협 력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일본 산.학.연 관계자들이 개최하던 모임이다. 올해부터는 범위를 확장하여 한일 간 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산지역 에서 개최하게 됐다.

심포지엄은 ㈜비투지가 주최하고 향 후 부산지역의 개최 정례화를 위해 부산 시가 후원 협력을 하며, 올해부터는 한국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행 사명을 기존 '화합물반도체 디텍터 심포지 엄'에서 '화합물반도체 디텍터 한일 공동 심포지엄'으로 변경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간의 전문 가 관계망(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공동연 구 등을 위해 화합물반도체 검출기(디텍 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아오키 토루 교수(일본 시즈오카대학 부총장) ▲시마 조 겐지 교수(일본 도쿄대학) ▲히로키 다

나카 교수(일본 교토대학) ▲히토미 게이 타로 교수(일본 도호쿠 대학) ▲코지마 타 카히로(일본 옥사이드 CTO) ▲박찬선 교 수(한국 고려대학교 바이오 의공학부 교 수) ▲오경민 박사(한국 한국원자력연구 원) 등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발표

특히, 18일 오전에는 기장군 방사선 의 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동남권원자력 의학원을 방문하여 의료 방사선 영상 관련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향후 수출용 신형연 구로 등 국책사업 관련 한일 공동연구 협 의를 진행한다.

심포지엄의 주관사인 ㈜비투지(전력반 도체 사업의 주요기업)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적극적으로 의료 영상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전력반도체 분야 강소기업 (2009년 설립)이다.

질화갈륨(GaN) 기판(웨이퍼) 및 수직 형 질화갈륨(GaN) 전력 소자 개발 등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질화갈륨(GaN) 기술 을 보유한 일본 대학과 업체들과 적극적으

지난 6월 2일에는 부산시-비투지-옥사 이드 3자 간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옥사이드는 일본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분야 강소기업(2000년 설 립)으로, 단결정 및 레이저 관련 기술개발 을 통해 반도체 소재 및 의료분야의 상용 화를 기업 목표로 하고 있고, 비투지와 적 극적인 기술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화합물반도체 디텍터'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질화갈륨(GaN), 카드늄텔룰라 이드(CdTe)를 이용한다. 기존 하나의 원 소로 구성된 실리콘(Si), 게르마늄(Ge) 반 도체 검출기(디텍터)보다 방사선에 감도 가 좋고 잡음이 적다. 특히, 의료분야에 적 용되면 작은 엑스(X)-레이 피폭량으로 좋 은 화질의 방사선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송복철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은 "이 번 '화합물반도체 디텍터 한일 공동심포 지엄'을 통해서 최신 연구 동향 공유 및 한일 간 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 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러한 협력을 바탕 으로 화합물반도체의 미래 응용 분야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 "부산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화합 물 반도체 산업 및 의료 영상 기기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 Korea-Japan Joint Symposium July 17-18, 2023, Busa

# 구미시, 농촌의 다양한 매력 발견, 특색 발굴…읍면이 변한다

### 구미시농촌협약지원센터, 농촌이야기학교.마을 활성화 등 운영

구미시농촌협약지원센터는 2023년 구 미시 농촌협약 사업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농촌 마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위해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농촌 이야기 학교 △주민들의 공 동체 형성 및 활력 조성을 위한 주민 이야 기 학교 △마을만의 특색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현장 포럼 △일반 농산어촌개 발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농촌 마을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이백 리 주민 제안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 주민 700여 명이 참여했다.

'농촌 이야기 학교'의 마을활동가 기초 과정은 '나의 일상과 활동이 모여 농촌의 풍경을 변화시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3 월부터 5월까지 10주 동안 교육을 진행해 16명이 수료했다.

심화 과정에서는 기초과정을 수료한 마 을활동가가 마을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마을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완료 지구 사후관리 활성화'는 일반 농 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자 문단의 도움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는 사업이다. 해평면 정다운 센터는 지난

해부터 준비해 온 마을기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도개 면 행복나눔센터에서는 운영 주체가 주도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이야기 학교'는 완료 지구 시설들 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동아리가 다목적 문화센터 등 시설 내에서 예술·인문·체육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선 산읍에서 '마을예술단', '선산에서 놀자'를, 해평면에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 '마을 안 내판 만들기'를 운영했으며 올해는 고아 읍, 도개면, 해평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협약지원센터는 온라인을 통 해 농촌 마을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이백리 기억하기 '월간농촌'을 3월부터 지속 운영 하고 있다.

관계자는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을 통 해 50여 명의 마을활동가가 농촌 마을 활 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협약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해 농촌 마을의 가치가 확대될 것 이며, 특색을 발굴해 농촌 마을 공동체 활 성화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 울릉군 독도박물관-고흥분청문화박물관 공동기획전시회 "흥양사람들 울릉도·독도로 향하다" 개최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고흥군 고흥분 청문화박물관은 2023년 7월 18일부 터 10월 22일까지 공동기획전시회 "흥 양사람들 울릉도 독도로 향하다"를 개 최한다. 해당 전시는 과거 울릉도 독도로 향한 흥양(고흥)사람들의 행적과 독도영 유권 확립에 있어 그 의의를 살펴보기 위 하여 기획되었다.

이규원이 작성한'울릉도검찰일기'에

흥양 초도사람 20명, 도동에서 흥양 거 문도사람 14명, 사동에서 흥양 초도사람 13명, 통구미에서 흥양 초도사람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머나먼 울릉도까지 와 서 어업과 벌목 등 생업활동을 했으며, 그 들과 같은 전라도인이 바위로 이루어진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독섬 =석도=독도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로 향 따르면, 1882년 울릉도검찰 당시 학포 한 흥양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 에서 흥양 거문도사람 24명, 천부에서 련 유물 24점을 전시하고, 흥양과 울릉

도의 관계사 관련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 문도와 초도 유적지 및 주민 증언영상 등 을 송출한다. 기획전시실입구에는 독도 체험키트를 배치하여 체험교육을 진행할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흥분청문화박 물관과의 이번 공동기획전시회가 고흥과 울릉도의 역사적 관계상을 재조명하고 관람객들에게 그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

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강제 기자



# 이철우도지사, "피해현장지원관리강화" 약속

- 윤재옥 원내대표, 많은 피해 입은 도민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 –
-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모든 행정력 동원해 지원할 것 -
- 대표단, 재난대응 기준 바꾸고 새로운 방식 접근 필요 공감 -
- 지난 한달 강수량, 장마철 연평균 강수량에 3배 쏟아져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대표단\* 일행이 16일 오후 지난 13~15일까지 24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엄청난 피해 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을 방문했다.

\*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 대표, 이만희 행안위 간사, 전주혜 원내대 변인, 김영식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 표 비서실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등

이날 대표단 일행은 먼저, 경북도청 재 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피해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피해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이 런 유형의 산사태는 없었다. 이번에 산사 태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에 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연평균 장 마철 강수량이 292mm정도였다. 지난 한 달 간 경북 북부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대피명령 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여명이 밤사이에 대피 했다. 경찰과 군의 도움이 가장 컸다. 적극 적으로 나서준 군과 경찰에 감사드린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얘기치 못한 폭우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경북도민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라며 "이 지사님의 기 후 변화 시대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과할 정도의 대응을 당부했다. 귀국하는 즉시 상황대처 에 나설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 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피해복구와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과 지자체의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히 지원 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와 원내대표단 일행



9)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 들에게 국회와 지자체 차원에서 조속한 피 해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벌방리는 산사태로 인해 주택 10여 채 가 무너지거나 파손됐으며, 마을 주민 2명 도 흘러내린 토사에 깔려 실종돼 수색작업 이 펼쳐지고 있다.

마지막 일정으로 집중호우를 피해 대피 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예천군문화체육센 터를 방문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모든 행정 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5일 밤 9 시를 기해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

는 도내 산사태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해안저지대, 하천하구, 산간오지 등 재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 피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대피명령 발동 이후 밤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다행히 추가 피해는 발 생하지 않았다.

### 수원시 영통구, 어린이집 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 집중점검

수원시 영통구는 여름철을 맞이해 7월 말까지 집단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 모 어린이집 105곳을 대상으로 급식·위생 및 안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발생 예방관리를 위한 위생실태를 확인하고 태 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 지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

사전에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계획을 알려 시설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수 원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현 장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

주요 점검내용은 ▲개인위생 관리 ▲급 식위생관리 현황 ▲재난대응, 태풍, 집중 호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 안전관리 및 교육실시 현황 ▲통학차량 안 전점검 ▲미세먼지 관리·방역관리 등이다.

구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위법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 전 방역 현장점검을 통하여 아동에게 안전 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만식/기자

### 연말까지 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대상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경기도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발 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 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질서를 목적으로 시행되며,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 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 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 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 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 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 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 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시행함으 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 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 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 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 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 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평택시, 소독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

### 방역용 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 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평택시는 코로나19 살균 소독제 공기분 무·분사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소독업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소독 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소독업소 128개소 를 대상으로 이달 21일까지 소독 안전관 리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 소독 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하게 금 지하고 있으며, 인체에 직접 분사하는 등 승인받은 용도 외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한 방역용 소독제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피부, 호흡기 등의 노출을 삼가 야 한다.

이번 점검항목은 ▲환경부 승인 소독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적정 소독장비 구 비·사용 여부 ▲소독 보호장비 착용 여부 ▲소독업자 및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소독실시대장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며, 소독업체들이 소독 제의 용량·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 서울시, 여름철 상수도 공사 현장 및 시설물 집중 안전관리

### 풍수해 및 태풍, 폭염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 집중 점검



서울시는 풍수해 및 태풍, 폭염 등 여름 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한 공사 추진을 위해 상수도 공사 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지난 5월 15일 재난안전대책본 부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중순까지 서 울시내 상수도 공사장과 6개 취수장, 정수센터, 배수지 등을 비롯한 주요 시 설물 42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 료했다.

여름철 풍수해 및 태풍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기상 상황 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구분 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

풍수해 대비는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 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집중호우 또는 폭 염으로 인한 조류경보제 발령에 대비해 원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질검 사와 약품 확보 등 철저한 수질관리 강 화도 포함한다.

또한,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

운영해 24시간 비상근무로 안정적인 수 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누수 발생 시에는 밸브조절 및 수계 전환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급수차 및 병물 아리수 긴급 지 원 등 비상 급수 체계도 차질 없이 운영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년 폭염 등에 대한 야외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은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 근 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8월 말까 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상수도 야외 공사장 대형 4건, 소규모 32건 총 36건에 대해 일 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폭 염 발효 시 근로자 휴게시간 및 공간 제 공 ▲현장에 시원한 물 및 비상약품 구 비 ▲열사병 교육 시행 여부 등 폭염 기 간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 야간에 진행되는 상수도 공사장 안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 해 8개 수도사업소에서 긴급 복구반을 한 '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 이행 사

항을 공사 현장부터 공사장 주변 시민의 안전까지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공사담당자, 감리, 현 장소장 등 상수도 공사 관계자 330여 명을 대상으로 총 3회에 여름철 공사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여름철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그동안의 지적 사 항들을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유연식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풍수해를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상수도 공사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라면서 "폭우, 폭염 등으로 인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 고 24시간 대비 체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관악구, 재난 예방에 총력,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긴급 재점검

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 사태 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인명피 해 제로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는 최근 강하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 졌을 것을 고려, 7월 17일 산사태 취약지역, 옹벽, 하수도 맨홀 등을 긴급 재점검했다.

특히, 이날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에 나선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전체면 적의 46.8%가 녹지지역인 만큼 구민들에 게 인명, 재산 등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 조치를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신림중학 교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등 3곳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단 한건의 피 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다.

또한, 주말에도 비가 예상됨에 따라 각

해 빗물받이 배수를 확보하고, 주택 축대 및 옹벽, 공사장 등을 재점검해 피해 예방 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갖춘 '관악구 재 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주요방재시설을 점 검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해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장마철은 폭우와 강풍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취 약한 시기다"라며 "꼼꼼한 시설물 점검과 철저한 대응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성원/기자

# 광산구, 건설기계사업자 일제 점검 광주시·건설기계협회와 합동…141개소 대상 7월31일까지

###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 광주 광산구가 광주광역시, 건설기계협

회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 14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7월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 내 건설기계 대여업·정비업·매매업·해체업 (폐기업)을 하는 건설기계사업자 중 자가 용 건설기계 대여, 무자격자 정비, 사업 등 록기준 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는 현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건 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 정지도·과태료부과·행정처분·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에 불법으 로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 등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 법·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설기계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병수/기자



### 고창군 •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김치산업 본격 진출

### 4년간 총 20억 전라북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착수

고창군과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는 "전라북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 공모사업에 고창군이 최종 선정되어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HACCP 인증 절임배추 가 공공장 구축, △소비자수요 맞춤형 김치 양념 개발 및 6차산업화 통한 농가소득 증대, △김치의 지역특화 브랜드화 등 3 가지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 진한다.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간 도비 10억을 포함해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로 고창형 김치클러스터를 통해 고창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무, 천일염, 해 풍고추.젓갈.마늘.생강 등을 활용 고품질 의 절임배추와 김치소(양념)을 생산해 3 배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게 해 국내 김치 산업 진출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2단계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푸 드테크 도입으로 개인맞춤형 김치와 글 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 산, 마케팅 전략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이사장은 "고창김치의 6차산업화를 통해 시장경 쟁력을 갖춘 절임배추 및 양념김치 생산 으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향 후 푸드테크를 접목해 글로벌 시장에도 진 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신규기업 모집

7. 24 ~ 8. 31일까지 신규 참여기업 신청·접수



경북도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 안'신규기업 모집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 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라리안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보유 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온·오프 라인 마케팅,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신규기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선정규모는 5 개사 정도이다.

신청대상은 경상북도 소재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최근 2년간 연매출액 3억 원 이상의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 조하는 기업 등이다.

접수 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검토, 서류 및 발표(PPT)·실제품 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실라리안 브랜드 로고 사 용,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경상북도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운전 자금(이차보전) 융자 한도 우대지원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실라리 안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해 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신규기업 모집에 지역기 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 페이지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 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순환경제 신 사업 공모전'을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 지 개최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 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해서 순환시키는 경제체제로 전 세계적으 로 그 관심과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 다. 공모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로 '이제는, 순환경제 비즈니스'가 주제다. 산업부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 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신사 업 모델을 발굴하고 순환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업이 신기술, 서비스 등 이 결합한 사업모델을 개발·실증한 것을 제안하는 '신사업 모델' 부문, 개인이 포스 터, 영상, 구호(슬로건) 등 순환경제에 관 한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신사업 아

이디어' 부문이 있다. 참가 자격에는 제한 이 없어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이라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사업 모델 부문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품질·공정개선, 사업모델 실증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총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사 업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5명을 선정해 총 500만 원의 상금과 작품 전시 등 홍보 기 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총 348건이 접수되어 21대 1 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1개 신사업 모 델과 5개 아이디어가 선정돼 총상금 1.7억 원이 수여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 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참여 희망 기업 또는 개인은 9월 8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지아/기자



# 삼성전자, 다음달'제7회삼성보안기술포럼'

개최 …참가접수시작

삼성전자는 8월 22일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제7회 삼성 보안 기술 포 럼(Samsung Security Tech Forum, SSTF)'을 개최한다.

'삼성 보안 기술 포럼'은 삼성전자가 정 보 보안 기술 저변 확대와 인재 양성을 위 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세 계적인 보안 전문가들과 학계·업계 관계자 들이 참가해 보안 기술 분야의 최신 성과 를 공유하는 자리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삼성 보안 기술 포럼'은 '보 안을 위한 해킹: 해킹이 어떻게 보안 혁신 을 이끄는가 (Hack for Security: How hacking drives security innovation)' 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서는 삼성전자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 연구소장 전경훈 사 장의 환영사에 이어 삼성리서치 보안 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시큐리티 & 프라이버시 팀장 황용호 상무가 기조 강연을 할 예정 이다.

이후, ▲미국 미시간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부 신강근(Kang G. Shin) 교수 ▲카 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윤인수 교수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한준 교수의 초 청 강연이 이어진다.

또한, 올해는 기술 세션을 더욱 다채롭

게 구성해 ▲보안 분야 대표 학회 논문 저 자들의 연구 내용 ▲고객의 제품 및 데이 터 보호를 위한 삼성리서치와 사업부의 협 력 활동 ▲취약점 조기 발견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도 매년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온라인 해킹체험존(Hacker's Playground)이 마련되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본 행사 3일 전인 8월 19일에 온라인으로 사전 진 행될 예정이다.

해킹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는 기초 해킹 실습, 모의 해킹 등 다양한 콘텐츠가 12시간 동안 제공된

삼성전자 전경훈 사장은 "고객의 제품 과 데이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삼성의 다양한 노력들과 함께 글로벌 보안 전문가 들의 최신 연구내용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보안 커뮤니티와의 기술교류와 협력도 더 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삼성 보안 기술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삼성리서치 홈페이지(research. samsung.com/sstf)에서 확인할 수 있 으며, 참가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 22 일까지 가능하다.

양시현/기자



# 안산시,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개발계획 수립 추진보고회 개최

2023.07.17(월) - 2023.08.22(화)

2023.08.19(토) 09:00-21:00 (KST

### 경기자유구역청·한양대·경기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 모은다

안산시는 지난 14일 경기테크노파크에 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

이날 보고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 해 김태희 도의원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양대 에리카, 경기테크노파크, 안산도 시공사, 경기주택공사 등 관련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 진상황 공유 및 핵심전략산업 선정, 개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취임 후 안산사이언스밸 리 중심의 '안산스마트허브 혁신 및 신성 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안산사이 언스밸리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경 기테크노파크 중심으로 200여 개의 중소 벤처기업과 연구소, 총 4,600여 명의 연 구원이 상주하고 있는 산업혁신의 요람으 로,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 한양대캠퍼스혁



신파크,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많은 국책사 업을 유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 책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안산스마트허 브 혁신으로 진정한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기관들이 가진 역량을 한뜻으 로 모아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를 통해 안 산시가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이끄는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내년 3월 경기도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서를 산 업통산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선정심 사를 거쳐 내년 10월에 최종 추가 지정지 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 광주광역시실감콘텐츠큐브 대박…올 촬영예약 꽉차

### 하반기 드라마·영화·공연 등 15건 촬영…예약률 100% 달해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인 광주실 감콘텐츠큐브(GCC)가 시험가동을 마치 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올 하반 기 영화 촬영·제작 등 스튜디오 예약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실감콘텐츠의 기술 개발 및 제작,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 한 글로벌 플랫폼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 (Gwangju Content Cube)'를 설립, 광 주를 첨단영상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GCC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국· 시비 900여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광주 시 남구 송암산단에 개관, 최첨단 영상제 작장비를 갖췄다.

GCC의 실감촬영스튜디오는 30m의 대형 발광다이오드 월, 시각특수효과 동시 합성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최첨단 가 상제작스튜디오다. 특히 실감촬영스튜디 오와 멀티프로젝션 기반의 융복합스튜디 오는 실감콘텐츠 제작에 특화된 시설로 민 간기업이 소유한 수도권의 최첨단 스튜디 오에도 뒤지지 않는다.

외지 촬영팀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장실, 레지던시까지 한건물 내에 구비돼 있으며, 이미 구축된 광주첨단영상제작센터(CGI) 에서 영상후반작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올 하반 기 15건의 영화 공연 등의 촬영 및 제작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스튜디오 예약률 100%에 달하는 일정이다.

OTT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된 K-생존게임 소재의 드라마 '밤이 됐습 니다'가 촬영될 예정이고, 실감스튜디오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미디어아트 융합 클래식 앙상블 공연인 '아르캉시엘 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밖에 XR(확장현실) 스테이지를 활용해 전통검무, 현대무용이 결합한 민속예술공연 콘텐츠와 상업영화 등이 촬영·제작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GCC의 첨단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광주 첨 단영상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국내 최대 규 모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가 본격 가동되 면서 첨단영상제작산업이 광주시의 신성 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송 암산단이 아시아문화전당, 나주의 한국콘 텐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연계 한 콘텐츠산업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하겠다. 앞으로 실감콘텐츠 테마파크 건립, 기업 집적화 공간 확대 등을 통해 문 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임종식경북교육감,집중호우피해학교현장점검

-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복구에 전력
- 임종식 교육감, "추가 피해 발생치 않도록 예방 철저, 피해 발생 현장 위생점검 및 방역 활동 만전 "당부해



방문해 학생 안전과 피해 복구 상황을 점

이번 점검은 폭우로 피해를 본 문경시 소재의 산북초, 모전초, 문창고를 방문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잔해물 제거로 학생 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확

위한 준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7월 17일 관

내 학부모 200여 명을 대상으로 『Chat

해와 함께,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역량, 대인관계와 협업 능

력 등을 위한 교실 수업 방법의 변화와 방

향성을 다루었다. 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학교 수업의 변화 풍경을 제시하며, 에듀

테크가 학습을 촉진하는 도구로써 활용됨

연수에 참석한 OO초 학부모 OOO는

"연수를 통해 Chat GPT의 이해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 수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진단 등 미래사회에 대

비한 학교 교육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학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전했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님들

이 자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

교 교육을 이해하고 지원, 협력하는 조력

자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라고 전했다.

운영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어려

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피해 복구를 위 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 고 학부모가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움을 극 복하는 모범적인 자세를 갖추어 줄 것을

임종식 교육감은 피해 현장에서 "아직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피해가 발생한 현장은 위 생점검 및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양교육지원청, Chat GPT 영양교육지원청, 2023 『콘텐츠 학교』운영으로 시대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미래 디지털 창의·인성 역량 강화 지원 학교 교육 지원 및 협력, 그리고 자녀를

- 김유희 영양교육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확산,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 ·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

GPT 시대의 미래 교육 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는 KT 전부규 과장(전문강사)의 Chat GPT 시대의 사회변화 연수가 진행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됐으며, 이어서 초등교육지원과 박영진 장 (금), 관내 초·중학교 3개 학급 대상, 학교 로 찾아가는 『2023 콘텐텐츠 학교』 학사의 고양 미래 교육에 관한 연수가 진 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Ghat GPT 시대 변화 이

> 콘텐츠 학교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경 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하여 지 역 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트랜디한 교육 콘텐츠를 제 공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학생 각 자가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디지털 창 의·융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3D/이모티콘 디자인, 유튜브, 숏폼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UX/ UI 등 유망 디지털 콘텐츠 분야 중 학교와 툰 클래스'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폰튜버 클래스를 통해 다양한 촬영 기법을 활용하 여 우리 학교와 지역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제작·발표하였으며 웹툰 클래스를 통해 나 만의 스토리보드를 기획하고 그래픽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웹툰을 제작하는 경험을

프로그램에 참가한 영양중 〇〇〇학생 은 "영양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폰튜버와 한영기/기자 웹툰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친구들과 함께 만든 학교 홍보 영 상을 보니 뿌듯했다."고 했으며 석보초 교 사 〇〇〇은 "앞으로 학생들이 콘텐츠 기 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삶에서 유익하게 사용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미디어,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 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콘텐츠 꿈나무 인 미래세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및 확산하여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에 큰 기대 가져

### 지역을 품고 세계로 가는 경북 직업교육

경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 생의 입학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토)부 터 29일(토)까지 해외 현지를 방문해 태 국의 교육부와 방콕교육청, 베트남 하노이 교육청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 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북은 의성군 외 15곳이 인구감소 지 역으로 지정돼, 지역 소멸 등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 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3년 핵심 추진 과제로'해외 우수 유학생의 입학'을 추진 해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률 하락과 산업 기술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경북교육청은 글로벌 시대 산업 수요에 맞춘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난 2010년부 터 10여 개국에 1,210명의 직업계고 학생 들을 해외 파견하는 등 글로벌 취업을 성 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오랜 노하우와 체계 적 교육시스템, 인적자원 확보를 기반으로 한 경북의 직업교육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 추고 있어 협력 체제 구축을 희망하는 여 러 나라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하와이와 베트남 교육관계자 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취업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과정 협력 및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고, 2024학년도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을 위한 사전 현지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몽골 등 ASEAN 국가 유학생이 입학을 희 망했으며, 특히 태국, 베트남 등의 현지 교 육기관은 지난 3월과 6월 방한해 ▲유학 생 선발 및 전형 방법 ▲직업계고 교육과 정 운영 ▲직업계고 교육 시설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 유학과 직업교 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 을 모색한 바 있다.

해외 우수 유학생 경북 직업계고 입학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결과 2024학년도 고교입학 전형에서 8개 학교가 해외 4개



국에서 5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 내 외로 선발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과정, 교육비 부 담, 학생생활규정 등 국내 학생과 동일힌 적용을 받으며,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취득, 3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인재로 양성해 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유학생이 D-4-3 의 일반연수비자로는 졸업은 가능하나 국 내 취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 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의 해 외 우수 유학생 입학→ 해외 우수 유학생 의 지역사회 취업과 정주 → 지역사회 인 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 록 향후 법무부,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 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해외 유학생들이 한 국어, 전공 직무 기술 습득, 지역 인재로 안착하도록 취업비자 발급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구인난 해소/지역 정착 으로 지방 인구소멸문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북부교육지원청, 업무 경감용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의 행보 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교직원들 의 업무 경감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6종 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 유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북부교육지원청은 청 내 직원과 교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직 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암호화 ▲초등교 사 휴·복직 인사발령 카드 생성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용 배부자료 생성 ▲초·중학교 중기 학생 배치 관련 보고서 생성 자동화(2종) ▲입찰 공고 자동 생성

북부교육지원청은 이 프로그램 공유를 위해 7월 19일 오후 3시 교육지원청 대 강당에서 다른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 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총괄한 서명호 팀 장은 "프로그램이 현장의 업무 처리 속도 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프로그램 사용 중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선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 이고,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 힘쓰 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 CONSTRUCTION **7.29**(E)~8.6(g)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은 세상을 물로 적셔래 장흥에 빠져라!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방문 계획

"청소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스카우트 참여와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 기울이겠다"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은 물론, 성인에게도 가치 있는 여가 시간 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 불어민주당, 수원7)은 17일 보건복지위원 장실에서 박재용 · 이병숙 · 허원 경기도의 원, 공효식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남부연 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회 스카우트동우회'(회장 최종현 경기도 의원)' 회의를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잼 버리 방문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경기스카우트동우회는 7월 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초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단체방문할 계획이다. 세계스카우트잼버 리는 4년마다 회원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전 세계적 청소년 야영대회다. 선진국에 서는 올림픽과 월드컵보다도 더 비중 있는 세계 청소년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5만여 명이 참여할 예 정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잼버리부지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 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스카우트연 맹이 주최 및 주관하고, "너의 꿈을 펼쳐 라!"를 주제로 영내 · 외 과정 활동, 문화교 류·체험,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운영된다.

최종현 의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장과 자기계발 문화를 선도해오신 경기도 스카우트연맹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경기도 청소년들이 지구촌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며 "경기도의 회 스카우트동우회는 청소년은 물론 다양 한 계층의 스카우트 활동 참여를 확신시키 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도 많 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스카우트동호회'는 최종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원(김규창, 김동 영, 김용성, 김재훈, 김종배, 박세원, 박재 용, 변재석, 서현옥, 이병숙, 이애형, 이은 주, 이인규, 이인애, 정동혁, 조용호, 허원, 황대호, 황세주)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대한민국 축구인재 고성군 여름밤을 뜨겁게!

제60회 청룡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고성군에서 39개 팀 3.000여 명 참가

고성군은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고성군 스포츠타운 및 동고성체육시설에 서 '제60회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 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와 부산일보 사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일보사, 부산시축 구협회, 고성군축구협회가 공동주관해 전 국 고교축구 명문 39개 팀, 3,000여 명이 참가한다.

7월 4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이번 대회 대진표를 확정했고, 39개 팀은 10개 조로 나누어 조별 리그 후, 각 조 1, 2위 20개 팀이 진출하는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60번째 청룡기의 주인을 결정한다.

결승전은 8월 2일 오후 6시 고성군 종 합운동장에서 킥오프할 예정이다.

올해도 저학년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1 학년을 대상으로 저학년부 경기도 함께 개 최돼 총 30개 팀이 8개 조로 나누어 조별 리그 후, 각 조 1, 2위 12개 팀이 본선 토너 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고성군은 2019년 제56회 대회를 시작 으로 2020년, 2021년 대회를 성공적으 로 개최하며, 대한민국 축구 인재들이 고

성군 여름밤을 뜨겁게 만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참가선수단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와 팬들이 고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 돼,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방문객들이 고성에서 즐겁고, 편안 외식업 단체 및 관련 실과와 협조를 통해 여름철 위생과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방문하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 본선 경기를 생중계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대한민국 축구 인 재들의 고성군 방문을 대단히 환영하며, 만족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관계 자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대 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참가 선수들에게 큰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

한편 고성군은 이번 대회개최와 더불어 청룡기 중등부 대회를 8월 5일부터 개최하 며, 부산일보사와 청룡기 중·고등학교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협약을 체결해 2025년 까지 고성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 성동구, '성동시니어 청춘 노래자랑' 어르신 참가자 모집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주최, 오는 20일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참가자 모집

서울 성동구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가 주관하는 어르신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성동시니어 청춘 노래자랑'의 어 르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참가신 청은 각 동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대상은 성동구 거주 65세 이 상 어르신으로 팀별 최대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예선은 참가 신청 규모에 따라 8월 1일 부터 9월 22일까지 성동구 지역별 노인복

지관에서 진행된다. 참가하신 어르신의 거주지에 따라 인근

복지관으로 예선장소를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참가 어르신 개별 영상을 성동 구 경로당 TV에 업로드하여 보다 많은 어 르신과 노래자랑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종 본선은 오는 10월 중 제2회 성동 구 어르신한마당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 며 최종 10팀을 선발하여 어르신들의 끼 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시니어 청춘 노래자랑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숨 겨두었던 끼를 발산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활기찰 수 있 도록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와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WCG 2023 BUSAN' 준비됐나? 준비됐다!

### 7.18. 14:00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3 WCG' 미디어 시사회 개최

부산시는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 잠 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SKY31) 컨벤 션에서 열리는 미디어 시사회에서 '월드 사이버게임즈 2023 부산(WCG 2023 BUSAN)' 대회의 세부 계획이 전격 공개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벡스코에 서 개최되는 'WCG 2023 BUSAN'은 빅 픽처인터렉티브(대표 송광준, 이하 '빅픽 처')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빅피처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오프 라인으로 개최되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또한 기존 종목 최강자를 겨루는 경쟁 대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으 로, 대회를 기다리는 이스포츠 팬들의 마 음을 벌써부터 설레게 하고 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그랜드파 이널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KD올스타 전 ▲라이벌 한중전 ▲라이벌 인도네시아 VS필리핀 등이 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꼽으라면 단 연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으로 개최된 'WCG 글로벌 상설 대회'의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WCG 그랜드 파 이널(하스스톤, 클래시로얄, 모바일 레전

또한 ▲WCG 글로벌 인비테이셔널(에 픽세븐, 원신:일곱 성인의 소환), ▲KD올 스타전(카트라이더 드리프트), ▲WCG Rivals#4 한중전(워크래프트3, 스타크래 프트2), ▲WCG Rivals#5 인도네시아vs 필리핀(모바일 레전드)도 개최돼 행사장 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신작 '쿠키런:브레 이버스'가 최초 공개되며, 이외에도 관객 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WCG 2023 BUSAN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데브시스터즈 신 작 쿠키런: 브레이버스가 WCG 2023 BUSAN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으로 팬들 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 움을 선사한다. ▲에픽세븐 성우 토크쇼, ▲WCG 레트로 게임존, ▲전문 코스프레 팀 포토존 행사 ▲게임 영향력자(인플루 언서) 팬 사인회(트레저헌터, 카론 크리에

이티브 소속),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 룹 레볼루션 하트와 에스더의 콘서트 무대 등 다양한 이벤트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박형준 부산시장은 "WCG 2023 BUSAN 개최를 위해 작년부터 쉼 없이 달 려온 빅픽처인터렉티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부산시도 오랫동안 대회를 기다려 온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 회 성공개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송종진/기자

# 인천시, 음악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름방학!

### 7.20~21, 23. 인천문화예술회관 여름맞이 청소년 음악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여름방학 시작에 맞춰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의 무더 운 열기를 식혀줄 청량하면서도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회를 준비했다.

렉쳐 콘서트를 시작으로 현악앙상블, 하 모니카 & 색소폰, 리코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골라보는 재

시원한 공연장에서 국내 정상급 연주자 들이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와 연주를 들으 며 학업으로 쌓인 피로함을 날려주고, 새 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2023 청 소년음악회"

- 여름방학! 클래식 지식을 뿜뿜하자!

올해 13살을 맞이한 "청소년을 위한 공 연축제 - 해설이 있는 음악회 '썸머페스티 벌'"이 7월 20일부터 23일(22일 제외)까 연장에서 열린다. 올해에도 클래식을 보다 친근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연주 뿐만 아니라 렉쳐 콘서트로 정평이 나 있 는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 및 클래식 입문 자를 위한 공연으로 연주뿐만 아니라 해 설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자랑하는 연주자 들이 참여해 지루하고 따분한 클래식이 아 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즐겁고, 친근한 클래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첫날인 20일에는 클래식 렉쳐 콘서트 의 레전드로 불리는 조윤범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클래식 음악사를 유쾌하게 들려주며, 콰르텟엑스의 멋진 연주회가 더 해져 한 번의 공연으로 클래식 음악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21일에는 국내 최고 하모니시스트로 꼽 히는 박종성과 국내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 을 넓힌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하모니카와 색소폰의 화려한 음색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23일에는 누구나 초등학생 시절 음악 시간에 접했던 악기인 리코더. 단독 무대로는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리코더 연 주회가 열린다. 공군 군악대에서 리코더로 제를 모은 차세대 리코디스트 남형주가 연 주한다. 리코더의 다양한 연주와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어우러진 아름 다운 선율을 들려줄 것이다.

착한 관람료로 친절한 해설을 곁들인 수 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이 번 프로그램에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클 래식 음악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꼭 한번 감상해 볼 것을 추천

문의)인천문화예술회관 032-420-

인천시립교향악단 "2023 청소년 음악 회"- 음악과 함께 유럽여행을 떠나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 '2023 청소년 음악회 : 음악과 함께 떠나는 유럽 여행 Vol. II'가 7월 21일 아트센터인천 콘 서트홀에서 열린다.

인천시향 정한결 부지휘자의 지휘로 진 행되는 이번 공연은 이탈리아, 오스트리 아, 러시아, 독일, 헝가리 등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나라 작곡가들의 곡들로 구성하여 음악을 통해 마치 유럽 현지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고자 한다.

현재 독일 도이치오퍼 부수석으로 활약 하고 있는 오보이스트 한이제가 모차르트 의 '오보에 협주곡'으로 청아한 오보에 사 운드의 진수를 보여줄 계획이다.

또한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서곡, 차 이코프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중 '폴로네 이즈', 오펜바흐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 리스트 교향시 3번 '전주곡' 등 '청소년 음악회'라는 타이틀에 걸맞도 록 감상하기 쉬운 클래식 음악들로 선곡

이번 연주회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 악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 하는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 의)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김종남/기자

### 시흥시, 연향기 가득한 '관곡지 연꽃축제' 22일 개최

시흥시 연성동 연꽃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22일 연꽃테마파크 일원에서 다채로 운 볼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연 향 기 가득한 '제3회 시흥 연성 관곡지 연꽃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가 열리는 관곡지는 조선 초기 문신 강희맹이 중국 명나라에서 연꽃 씨를 가져 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재배한 장소로, 이 를 기념해 '연성(蓮城)'이라는 지명이 시작 됐다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다. '연성 관곡지 연꽃축제'는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날 축제에서는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강희맹의 '연' 이야기와 지역주 민들의 동아리 공연, 주민 노래자랑으로 흥겨움을 더하고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등 여러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축제 중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는 '일회용품 제로 캠페인'이 진행된다. 캠페 에게는 시원한 물과 냉연꽃차를 제공한다.

김상동 연성동장은 "우리 마을의 상징 인 연꽃을 주제로 해, 마을에 대한 애착심 을 고취하고 주민 간 화합할 수 있는 축제 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 다 함께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라고, 연꽃축제가 시 흥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대중화 전시·홍보 온힘 전라남도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이 올 대중음악의 전당에서 운영되는 3 전시 두고 남도 전통수묵의 세계화로 발돋움하 관은 '미래는 수묵시대'를 주제로 대학생 수묵제 40작품과 어린이 수묵제 60작품

가을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남 녀노소 모든 계층이 즐기도록 작품 전시와 홍보에 온힘을 쏟고 있다. 올해 3회째로, '물드는 산, 멈춰선 물-숭

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15개국 160 여 유명작가가 전통수묵과 현대수묵의 조 화를 선보인다.

목포 일원에선 1~3 전시관이 운영된다. 1 전시관인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선 '산-물, 바람-빛'을 주제로 대표적 중견 수묵 작가와 세계적 해외작가가 수묵산수를 통 한 치유와 명상을 제공하는 '현대수묵1', 16개국 작가의 체류 과정을 통한 수묵 작 품과 문서 작업 '목포는 항구다'가 운영된 다. 특별전으로 고종의 5남으로 독립운동 가인 의친왕과 호남의병과의 관계, 추사 김정희, 흥선대원군 등 구한말의 황실 유 묵, 서화, 글씨 등을 전시한다.

2 전시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선 '풍경은 같은데 산수가 다르다'는 주제로 20명의 작가가 참여해 유명 중견작가와 젊은 작가가 동시에 재해석하는 수묵의 재 료성과 현대성을 표현하는 전시가 펼쳐진 을 전시한다.

진도에선 4~6 전시관이 운영된다. 4 전 시관인 남도전통미술관에선 '운림, 구림이 스미는 검은 숲'을 주제로 최근 한국화가 의 신작을 전시한다.

운림산방 소치 1관·2관에서 운영하는 5 전시관에선 '화담·지자요수 인자요산'을 주제로 남도를 넘어선 아름다운 화맥과 인 연, 문인화적 풍모를 보여주는 산수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안과 대안을 주는 미디어아티스트 6인의 상호반응형 전시로 운영한다.

6 전시관인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선 '묵 연'을 주제로 영호남 작가가 화합해 국제 적 예술축제 위상을 강화하는 전시가 펼쳐

이밖에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해남 대흥사 등 3곳에서 특 별전시관을 운영하고 14개 시군이 참여하 는 시군기념전을 통해 전남 어디서든 수묵 을 감상하고 경험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을 앞

기 위한 사전홍보도 한창이다. 지난 3월 전남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행사 에 이어 5월 인사동과 대학로 일원에서 사 전 분위기 고조 활동을 펼쳤다. 진도 출신 트로트 가수 송가인을 2021년에 이어 홍 보대사로 위촉하고 명예홍보대사로 재경 목포·진도향우회장을 위촉해 출향 지역민 과 수도권 겨냥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입장권은 수묵비엔날레 누리집과 티켓 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성인 7천 원, 청소 년 3천 원, 어린이 2천 원 등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입장권 하나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진도 운림산방,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예 술랜드, 해남 공룡박물관 등을 포함한 전 남 61개 유명 관광지, 27개 요식업소, 5개 숙박업소에서 연계 할인 혜택이 있다.

김선출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한국 수묵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찾도 록 홍보하고 있다"며 "2023 전남국제수 묵비엔날레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 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